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4년 2월
석사학위 논문

점토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보육시설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심리치료학과

정 하 연

점토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보육시설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Using Clay on the
Improvement of Peer Relationships and Sociality of the
Children in Childcare Facilities

2024년 2월 23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술심리치료학과

정 하 연

점도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보육시설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지도교수 김 승 환

이 논문을 이학 석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술심리치료학과

정 하 연

정하연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_____ 문정민(인)

위 원 _____ 김택호(인)

위 원 _____ 김승환(인)

2023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viii
I . 서론	1
A. 연구 필요성 및 목적	7
B. 연구문제 및 가설	7
C. 용어 정의	17
1. 보육시설 아동	7
2. 또래관계	7
3. 사회성	8
4. 집단미술치료	9
II .이론적배경	10
A. 보육시설	10
1. 보육시설 아동의 개념 정의	10
2. 보육시설 아동의 특징	11
B. 또래관계	15
1. 또래관계 개념 정의	15
2. 보육시설 아동의 또래관계	16
C. 사회성	18
1. 사회성 개념 정의	18
2. 보육시설 아동의 사회성	19
D. 점토 미술치료	21
1. 점토 미술치료의 개념 정의	21

2. 점토 미술치료의 효과	23
3. 점토 미술치료와 보육시설 아동의 또래관계	25
4. 점토 미술치료와 보육시설 아동의 사회성	26
E. 집단미술치료	28
1. 집단미술치료의 개념 정의	28
2. 집단미술치료의 효과	30
3. 집단미술치료와 보육시설 아동의 또래관계	32
4. 집단미술치료와 보육시설 아동의 사회성	33
III. 연구방법	35
A. 연구대상	35
1. 집단 구성원 개인별 특성(통제집단)	35
2. 집단 구성원 개인별 특성(실험집단)	37
B. 분석방법	39
1. 또래관계 검사	39
2. 사회성 검사	40
3. 동적 학교생활화 그림검사(KSD)	41
a. 진행방법	41
b. 해석	42
C. 연구절차	43
1. 치료기간 및 장소	43
2. 절차일시	43
D.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44
1. 프로그램 구성 및 배경 및 단계	44
2. 단계별 목표	44

3. 프로그램 회기별 진행 절차	46
4.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47
E. 자료분석 및 통계	50
IV. 연구결과	52
A. 기술통계	52
B. 동질성 검증을 하기 위한 T-test	53
C.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보육시설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 성에 미치는 효과	55
D.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동적 학교생활화 그림검사(KSD)에 미치 는 결과	66
E.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참여자 변화 내용 분석 ..80	
1. 프로그램 단계별 내용 분석	80
a. 초기단계(1~3회기)	80
b. 중기단계(4~10회기)	89
c. 종결단계(11~14회기)	111
V. 논의 및 결론	122
참고문헌	125
국문초록	128
부록	130

표 목 차

<표 1> 아동기 사회성 하위요인 특성	8
<표 2> 통제집단 대상자의 특성	35
<표 3> 실험집단 대상자의 특성	37
<표 4> 또래관계 검사 하위영역 및 문항구성	39
<표 5> 아동용 사회성 검사의 하위영역 및 문항구성	40
<표 6> 연구 진행절차	43
<표 7>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 단계별 목표	45
<표 8> 프로그램 회기별 진행절차	46
<표 9>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47
<표 10> 변인별 기술통계량 결과분석	52
<표 11> 사전 동질성 검증 결과	53
<표 12> 또래관계 사전검사 평균차이 검증	55
<표 13> 사회성 사전검사 평균차이 검증	56
<표 14> 또래관계 사후검사 평균차이 검증	57
<표 15> 사회성 사후검사 평균차이 검증	58
<표 16> 통제집단 또래관계 사전사후 평균차이 검증	59
<표 17> 통제집단 사회성 사전사후 평균차이 검증	60
<표 18> 실험집단 또래관계 사전사후 평균차이 검증	61
<표 19> 실험집단 사회성 사전사후 평균차이 검증	62
<표 20> 또래관계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63
<표 21> 사회성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64

그림 목 차

<그림 1> A의 KSD 사전, 사후 그림변화	66
<그림 2> B의 KSD 사전, 사후 그림변화	67
<그림 3> C의 KSD 사전, 사후 그림변화	68
<그림 4> D의 KSD 사전, 사후 그림변화	69
<그림 5> E의 KSD 사전, 사후 그림변화	70
<그림 6> F의 KSD 사전, 사후 그림변화	71
<그림 7> G의 KSD 사전, 사후 그림변화	72
<그림 8> H의 KSD 사전, 사후 그림변화	73
<그림 9> I의 KSD 사전, 사후 그림변화	74
<그림 10> J의 KSD 사전, 사후 그림변화	75
<그림 11> K의 KSD 사전, 사후 그림변화	76
<그림 12> L의 KSD 사전, 사후 그림변화	77
<그림 13> M의 KSD 사전, 사후 그림변화	78
<그림 14> N의 KSD 사전, 사후 그림변화	79
<그림 15> 1회기	80
<그림 16> 2회기	83
<그림 17> 3회기	87
<그림 18> 4회기	89
<그림 19> 5회기	92
<그림 20> 6회기	95
<그림 21> 7회기	98
<그림 22> 8회기	101
<그림 23> 9회기	104
<그림 24> 10회기	107

<그림 25> 11회기	111
<그림 26> 12회기	114
<그림 27> 13, 14회기	118

부 록 목 차

<부록 1> 연구참여 동의서	140
<부록 2> 또래관계 질문지	141
<부록 3> 사회성 질문지	144

ABSTRACT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Using Clay on the Improvement of Peer Relationships and Sociality of the Children in Childcare Facilities

Jeong Ha Yeon

Chosun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Art Psychotherapy

Advisor Kim Seung Hwa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a group art therapy program using clay media on the simultaneous relationships and sociability of children in day care facilities. The experimental subjects of the research were 5th and 6th grade children who were recommended by a welfare worker at a ○○nursery school located in Jeonnam Aphae-do, and 5th and 6th graders who were recommended by a welfare worker at a ○○nursery school located in Jeonnam Mokpo City. The subjects were 4th, 5th, and 6th grade children. There were a total of 14 participa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with 7 participants each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This research group program is the 14th in total, including the 3rd in the initial stage (1st to 3rd), the 7th in the middle 1st stage (4th to 7th), the 10th in the middle 2nd stage (8th to 10th), and the final stage. It consists of four sessions (11th to 14th). The program was held in a group

counseling room within a child care facility. For the control group, the pre-test and post-test were conducted one month apart, in the same way as the experimental group, and were conducted in a group counseling room within a child care facility.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ocial workers at each child care facility, and the SPSS 25.0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In addition, similar to the pre- and post-tests, peer relations and sociability scale tests and KSD (Kinetic School Drawing) tests were administered to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Qualitative analysis of the painting examination was carried out by the present researcher and one art therapist, who conducted structural and morphological analyzes of the paintings, respectively, and then received expert supervision to ensure reliabi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group art therapy program had a higher average score in the peer relationship of children in daycare facilities in the experimental group (3.538) than in the control group (1.842), and higher than the experimental group's pre-trial score (2.342), indicating that clay media was used. Group art therapy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peer relationships.

Second, the group art therapy program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social development of day care facility children, with a pre-experiment average of 1.497 and a post-experiment social average of 2.402, which was higher than before the experiment, and compared to the pre-experiment average. Group art

therapy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impact.

Third, the group art therapy session program using a clay medium stimulated the senses through the use of a viscous medium with a soft texture, and the use of aggressiveness and harsh language decreased. Also it was an opportunity for the children at the nursery school to recognize and adjust the rules of group living, consideration for others, and self-expression while having a positive influence on peer relationships.

In this way, group art therapy using clay media has the potential to be used as a preventive measure for maladaptive behavior in child care facilities, as well as a program for improving peer relationships and socialization among children in day care facilities. .

Key words: clay media, child care facility, peer relationship, sociality, group art therapy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기 성장과 발달은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사회의 한 구성원인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신체적, 언어적, 사회적 발달이 이루어진다(권양지, 2017). 아동기에는 부모나 주 양육자와의 관계가 아동의 성격발달과 사회성, 정서, 행동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아동은 학교 공동체 생활을 통해 처음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경험을 습득하기도 하며 학습이 시작된다(김순희, 2015).

최근 사회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부모의 이혼, 별거, 가정불화, 유기, 방임 등 가족해체가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며, 그에 따라 보육시설에 입소된 아동들 역시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5).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어있는 보육시설 아동들은 부모에 의한 양육의 환경과는 달리 여러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공동의 규범에 순응해야 하고 자신의 욕구를 일일이 충족시켜주지 못하거나 수용되어지지 않는 환경으로 인해 심리적 상태가 일반가정 아이들과는 차이가 있다(서장훈, 고영한, 양정미, 2013). 그러써 사회성을 길러 나아가야 할 시기에 올바른 소통방식과 문제해결 방법 등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배우지 못하게 되고, 이후 초등학교에 들어가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보육시설 아동들은 부모의 유기로 인한 분노와 불안의 정도, 대상 상실로 인한 슬픔, 긍정적 정체감의 결핍, 위기감 등의 내재화된 문제들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와 동시에 청소년 비행이나 우울증 청소년 등 학교 내에서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여 학교 부적응 등 외현화된 문제들도 나타난다(이재희, 2017). 이로 인해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조성하는 방법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 문제해결에 머무름으로써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사회에서 많은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시설보호아동은 단체생활로 사회적 기술이 발달되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일반아동에 비해 긍정적인 사회적 기술이 낮았다. 그 이유로는 시설보호센터의 양육자는 홀로 여러 아동을 다뤄야 하는 조건 속에서 그런 상황에 아동을 대처하는 방법, 적절한 자기표현 방법, 또래관계에서 배려하거나 협동하는 방법 등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김아름, 2014). 따라서 시설보호아동은 학교 및 사회적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 태도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것은 한창 사회적 기술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환경에 적응하고 기술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이런 부적응 현상은 성인이 된 후에도 사회로부터 부적응자에 머물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손남숙, 2004; 박인숙, 2006; 장은희, 김인숙, 백양희, 2010).

현재에도 이러한 보육시설 환경에 있는 아동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시설 내 혹은 학교에서 적절한 상호작용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동들의 또래관계는 더욱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박희진, 2011, 재인용). 아울러 개인에 대한 관심이 적은 환경으로 인하여 심리적인 문제 발생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설보호 아동 특성을 고려한 심리적인 상황 개입이 필요하다. 즉, 청소년기 문제행동이 나타나기 이전인 학령기의 보육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효과적인 중재가 제공된다면,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방적 차원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또래관계란 Lewis와 Rosenblum(1975)에 의하면 또래를 단순히 나아가 같은 사람이 아닌, 행동과 인지 및 사회적 지위가 유사한 수준에서 상호작용하는 사람(최순영, 2005)으로 정의하였다. Sullivan(1980)에 의하면 아동이 8-11세에 이르게 되면 친한 친구관계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이 시기의 아동은 동성인 또래와 가깝고 상호적인 친구관계를 형성한다. Shaffer(1994)는 아동기는 발달적으로 또래집단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또래와의 관계형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Perry&Bussy(1984)는 또래 간의 상호작용 관계로 긍정적 관계와 부정적 관계 모두를 포함하고 있고,

아동의 또래관계는 대인관계의 한 측면이라고 하였다(정현희, 2008). 또한 Hartup(1983)는 또래관계를 통해 아동은 적절히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는 것도 배우며, 대인관계 기술습득과 사회적 지원도 받는다고 하였다(장성순, 2006).

사회성은 학자마다 다양한 관점을 논하는데 Phillips(1985)는 여러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 가능하며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소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김도희, 2014). 아동기는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을 획득하게 되는데, 부모나 형제, 자매와의 좋은 가족관계가 사회성 습득의 중요성으로 꼽히고 있다(손경숙, 2007).

본 연구에서는 사회성의 구성요소 중에서도 협동성, 자주성, 준법성, 사교성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는 사회화가 본격적으로 발달하는 초등학생이 습득해야 할 주요 사회적 기술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자신의 의사를 적절히 전달하며, 사회규범이나 성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욕구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이 사회성의 척도이다.(김순자, 조용태, 1998)재인용, (김도희, 2014)

이렇게 또래관계 속에서 적응하는 것의 어려움을 지닌 아동들에게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대표적으로는 학습이론에 근거한 강화, 모델링치료와 인지적접근에근거한 코칭, 사회적 문제 해결 훈련 등이 있다. 또한 또래관계 증진을 위해서 (주희연, 2012)은 부모나 치료자와의 애착증진에 중점을 둔 접근과 또래집단 안에서 집단활동을 통하여 중재하는 접근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또래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집단미술치료를 하고자 한다.

미술치료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지니고 있거나 미숙한 아동들이 자기 생각과 욕구 등의 감정들을 언어화하는데 미술이라는 매체로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통해 아동의 심리검사와 치료에 넓게 활용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미술치료를 경험한 시설아동의 불안정한 감정과 위축된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성취감

을 경험함으로써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박현화, 2017). 더욱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때에는 소속감을 제공하고, 또래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정서적인 안정감 강화와 함께 사회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다.

Smith(2000)는 집단치료가 사회적 관계나 동료와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 자신의 행동이나 충동을 통제하는 자기훈련이 결여되어 있는 아동, 자기확신감이 없어서 고통받는 아동, 적절하고 자아증진적인 적응행동을 개발하는것이 어려운 아동에게 효과적이라고 제시하였다.

특히 비슷한 양육 환경에 처해 있는 아동들이 함께 모여 동일한 그림을 그리거나 협동작업을 통하여 서로에게 격려와 지지로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집단미술치료는 개인치료에서 기대할 수 없는 새로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김정희, 정다운, 2011). 집단미술치료는 미술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치료사의 전문적인 개입을 통하여 아동에게 공감과 수용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 안에서 정서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성취감을 갖도록 도울 수 있다(박혜경, 2008). 또한, 집단미술치료 안에서 집단의 규칙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속에서 바람직한 또래관계를 경험하게 된다(이경은, 2000). 그리고 집단미술치료는 집단원과 이미지를 공유하고 타인과 함께 경험의 양상을 공유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집단원 각자가 내재화된 이미지를 느끼고 다른 집단원들과 의사소통하며 자기탐색을 하도록 돕는다(정익현,2001). 또한 집단미술치료는 사회성증진, 자기존중감증진, 대인관계, 현실검증력, 자아상증진과 자기인식변화, 집단원간의상호작용, 감정의승화된 표현증진에 효과적이다(Green,Wehling & Talsky,1987).

사회성에 관한 집단미술치료의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김미숙,2002:김정현,2005:최신현,2008:김소영,2009:정경은,2009:김정임,2010:이지연,2010)에서도 아동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를 돕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주의집중이 짧고 실천력이 부족한 초등학교 아동에게 있어서 또래관계를 통한 다양한 적응적 체험과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하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은 매우 유용한 상담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집단미술치료는 아동 개인의 정서적인 부분을 표현할 수 있고, 집단이라는 구성원들 간에 긍정적인 또래관계의 기술을 배우는데 유용할 수 있다(한국미술치료학회, 2004).

노현미(2009)는 집단미술치료가 아동의 충동성을 감소시키고 자기 통제력을 향상시킨다고 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수용하고, 표출하여 타인의 정서를 적절히 인식한다고 보았다.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시키고 조절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타인의 감정을 읽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로 허숙자(2008)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시설보호아동이 거부감 없이 미술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집단구성원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상호작용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시설보호아동은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하여 충동성을 억제하고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여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시설아동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한 타인에 대한 적대감 및 긴장이나 불안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매체 중의 하나로 점토를 활용하고자 한다. 점토는 특별한 도구 없이도 조작 가능하고, 저렴하고 구하기도 쉽다. 뿐만 아니라 미술에 대한 소양이나 지식 없이도 자연스럽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매체이다. 점토는 아동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여러 가지 감각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점토는 마음먹은 대로 손쉽게 형상이 변화된다는 점에서 성취의 즐거움과 주의집중 행동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김은숙, 2004).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하고 에너지를 유발시킨다(이정훈, 2001). 이러한 점토의 효과를 다룬 몇몇 연구들은 점토가 사회성 발달 및 언어발달과 신체발달에 효과적이고, 지적 성장 및 창의적인 성장을 돕는다고 밝히고 있다(김미경, 2004; 김민경, 2004; 김남웅, 2000).

시설보호 아동에게 점토라는 매체를 활용한 선행연구(서미화, 2007; 김애리, 2007; 이승미, 2007; 이종순, 2007; 윤지영, 2006; 허경화·김자경·김기주·강혜진, 2007; 정정순·이진혜,

2005; 이승임·지성애, 2004; 이부연, 2002)를 살펴보면, 점토매체의 치료적 특성을 활용한 주의력결핍이나 충동성 조절 등 과잉행동 문제 아동을 위한 미술치료가 많으며 점토를 활용하여 보육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또래관계와 사회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육시설 아동들을 대상으로 점토 미술치료를 통한 또래관계 및 사회성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또래 관계 형성의 어려움과 사회성이 뒤쳐진 아동의 문제행동을 완화 시키고 학교생활 만족과 적응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B. 연구 문제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집단미술치료가 보육시설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점토 활용 미술치료가 아동의 또래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점토 활용 미술치료가 아동의 사회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C. 용어 정의

1. 보육시설 아동

보육시설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1항에 정의로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혹은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서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본 연구에서는 위의 사항에 입각하여 신안군 S읍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과 목포시 D동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아동을 보육시설 아동이라 하였다.

2. 또래관계

또래관계(PeerRelationship)는 친근하고 동등한 지위를 가진 성원들로 구성되어 행동상의 복잡성 수준이 비슷한 상호작용을 하는 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Hartup, 1983). 또한, 또래관계는 정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공동의 행동규준과 목표를 갖고 소속감을 공유한 놀이친구 이상의 관계를 말한다(최경숙, 2000). 본 연구에서는 또래집단 구성원 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수용과

인정을 받으려는 상호 간의 역동관계를 말한다.

3. 사회성

사회성(sociality)이란 인간이 사회환경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 즉 적응해 나가는 능력을 일컬으며 적응하는 성질 또는 사회관계 의식을 말한다(홍기옥,2007). 집단활동을 즐기고, 친구가 많고, 협동적이며, 인정이 많고, 남과 의견이 잘 맞으며, 충돌이 적은 특징으로써, 사회활동을 기피하고, 수줍어하고, 고독을 일삼는 비사회성과 대조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정범모,1971). 본 연구에서는 시설 내에서 적절하게 적응하고, 반응해 나가는 능력, 사회행동 수준을 말한다.

<표 1> 아동기 사회성 하위요인 특성

구분	아동기 사회성 하위요인 및 특성
준법성	사회적인 규범이나 학교의 질서를 잘 지키고 집단생활에서의 도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사교성	다른 사람과 스스럼없이 친밀하게 지내며, 타인의 의견을 이해하고 어려움 없이 관계를 잘 형성 하는 것이다.
협동성	친구나 타인의 일을 옆에서 잘 도와주며, 집단활동에 또래와 잘 어울리고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자주성	자신의 일을 스스로 계획 실천하고, 자기의 의견을 소신 있게 표현 하거나 주장하는 것을 뜻한다.

위와 같이 아동기에서는 사회성 하위요인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아동에게 긍정적인 성취감을 도모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관계형성을 통해 어려움 없이 사회적으로 적응하는 환경이 중요하다.

4. 집단미술치료

집단미술치료는 소그룹의 집단원들이 다양한 미술매체를 활용하고 창작활동을 함으로써 개인 내면에 있는 심리 정서 상태를 표출한다. 또 집단원들의 감정을 공감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7명의 보육시설 아동이 다양한 점토 매체를 통해 또래관계 및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미술치료 이론을 토대로 구조화하여 총14회기로 구성하였다.

II . 이론적 배경

A. 보육시설

1. 보육시설 아동의 개념 정의

시설보호 아동은 부모가 아동에 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부모를 대리하여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뜻한다. (대부분 미혼모, 보호자의 경제적 어려움, 학대, 별거, 이혼 등의 사유로 시설에 입소)

아동양육 시설보호란 아동의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때 타인이 부모역할을 대신하여 일정기간이나 장기간동안 시설에서 집단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Kadushin과 Martin은 양육시설을 아동과 무관한 성인들의 보호하에서 아동을 위한 24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를 필요로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양육시설이란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들에게 보호와 치료 및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을 아동양육시설 보호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시설보호라고도 한다. 과거와 같이 전쟁고아나 생활고로 인한 기아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최근에는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인한 해체가족의 증가와 미혼모의 증가 등으로 가정의 아동양육기능의 약화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나 방임 등과 같은 문제로 아동의 양육환경으로서 부적절한 가정도 증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대안으로 양육시설보호가 중심적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과거의 양육시설보호는 부모 없는 고아들을 수용해서 단순하게 보호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오늘날의 경향은 보호아동의 문제를 근본적

으로 해결하여 건전한 인격발달과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보육시설 아동의 특징

시설보호 아동은 부모의 부재 또는 역할 수행 불가능으로 인해 상실의 상처를 안고 시설에 들어오며 입소 후에도 시설의 통제된 환경과 통제된 집단 환경 속에서 겪는 다양한 부정적 요인들이 아동의 성장기에 심각한 결핍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성장 후에도 사회적응이나 자립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Bowlby(1971)와 Erikson(1989)은 가정에서 모성의 매우 강조하였는데, Bowlby(1971)는 아동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대부분이 모성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성의 존재와 양육태도, 애정 및 언어모델은 아동의 발달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들이라고 하였다. 또 Erikson(1989)은 6세까지 부모로부터 무방비한 상태에 놓여있던 아동들은 이후 또래와의 관계나 학습능력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이처럼 초기의 모성실조는 행동장애를 비롯하여 성격, 언어, 인식 및 발달상의 장애를 가져오며, 실조와 결핍이 장기효과에 대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았다(Rutter, 1992). 시설보호아동의 발달적, 정서적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설에서 보호받은 유아는 식욕감퇴, 환경에 대한 무관심, 발달지체, 체중미달 등의 의존성 우울(anacletic depression)이라는 증세를 보였고, 골드파브(Goldfarb, 1945)는 3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시설에서 양육 받은 아동은 행동이 수동적이고 정서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를 보였다고 하였다. 리블(Ribble, 1943)에 의하면 영아들이 출생 직후 시설에서 아동 양육 전문가에게서 보호받는 경우 거의 30%의 영아가 강한 근육 긴장을 보이는 등 신체적인 건강을 상실하게 된다고 한다. 한편, 시설아동의 발달에 대한 관심을 가진 스피츠(Spitz, 1955)는 많은 영아들을 연구하면서, 어머니와 분리된 영아들과 매우 어린 아동들도 애착대상과의 분리를

경험하였을 때 우울 증상이 나타나는 사실을 관찰했는데, 잘 울고, 슬픈 표정을 하고, 동작이 둔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반면에 Koluchova(1976)는 유아기의 모성실조의 경험을 가진 아동들도 후에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자극이 풍부한 적절한 환경이 제공된다면, 사회적으로나 지적, 정서적으로 뚜렷한 회복을 보일 것이라고 하였다(이영주, 1998. 재인용). Spitz(1965)는 어머니의 상실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그 대신에 박탈을 경험한 영아에게 가장 치명적인 정서적 상호작용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정서적 교류는 영아기의 정서발달뿐만 아니라 아동기의 성숙과 발달에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한 정서적 교류는 어머니 혹은 대리인과 아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서적 교류를 아동에게서 박탈하면 심각한 결과가 발생한다. 극단적인 경우, 성격의 모든 측면에서 위험한 발달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이 어떤 사회적 환경 속에서 지지를 받으며 성장하고 발달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시설보호 아동의 발달적 측면을 보면, Bowlby(1965)는 시설아동이 일반가정 아동보다 목소리가 작으며 언어발달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최일경, 1995) 그리고 아동에게 집중되는 감각적 자극이 적고, 말을 습득하였을 때 어머니가 주는 칭찬이 적으며, 사회적 접촉의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정옥분, 2013). 또한 시설아동은 지능발달에 있어서 일반가정 아동들에 비해 낮은 지능을 보이고, 정신발달에 있어서도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지체되고 있다고 한다(Goldfarb, 1955). 이렇게 여러 연구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시설아동은 일반가정의 아동에 비해 지적 발달이 현저히 늦어 개념형성, 추리, 추상적 사고가 어려우며(Ainsworth, 1962; 김성태, 1978; 노태화, 1979 재인용), 학문적 지체를 보였다(Zima, Wells, & Freeman, 1994). 또한 규칙적이고 통제적인 생활습관으로 인해 자유로운 행동과 사고에 지장을 줌으로 자주성, 창의성의 부족과 운동기능, 의사소통의 어려움, 감정 및 애정표현, 언어발달, 사물에 대한 반응의 모든 면에서 시설아동이 늦은 발달을 보였다(염미영, 1987).

시설보호 아동의 정서적 측면을 보면 시설환경은 규칙화되고 획일화된 단체생활과 공동 양육형태로 인해 따뜻한 부모의 보살핌이 부족하고, 대규모 시설 속에서 아동들은 개별화 될 수 없다(이재희, 2017). 그로 인해 시설보호 아동들은 주의산만과 정서불안 또 사고는 단순한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손남숙, 2004). 그리고 시설의 환경적 특성과 맞물려 아동들은 우울을 쉽게 느끼게 된다(이근매, 2009). 또한 아동기의 사회성 습득은 아동이 성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가족의 부재로 인하여 밀접한 유대관계 형성이 어려워 일반아동에 비하여 지적인 활동과 정서적 안정감 그리고 사회적 적응이 부족하게 된다(강영숙, 2010). 부모나 주 양육자로부터 분리된 시설아동들이 위축되고 눈물을 잘 흘리고 먹기를 거부하며 수면 장애를 나타내는 것을 관찰하고, 시설아동들이 나타내는 이러한 증상들을 ‘분리성 우울(analytic depress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최은희, 2006). 오랫동안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경우, 부모의 불화가 지속되거나 별거나 이혼으로 인해 부모와 헤어지는 경우, 부모의 사망 등이 아동에게 우울을 유발하게 한다고 하면서 아동은 우울과 더불어 자책감과 죄의식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안윤영, 1999). 또한 일반아동과 시설아동의 행동 특성 비교연구에서 시설보호 아동이 불안과 우울, 공격성, 정서불안이 일반아동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고 하며 시설보호 아동들의 우울을 언급하였다(공경희, 2002; 박인숙, 2006). 김은영(2004)은 시설아동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조사한 결과, 불안 심리와 우울증, 애정 결핍과 수줍음 등을 크게 의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Whittaker(1985)는 시설보호아동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습관들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한 문제가 되는 습관은 대인, 가족, 정서, 교육적인 것들로서(Whittaker, 1985; 공계순 외, 2003), 첫째 욕구 불만을 참지 못하고 만족을 유예하는 능력이 제한되어 충동 통제의 발달이 부족하고, 주변의 자극을 분별할 능력이 부족하고 쉽게 집단적 흥분을 하게 되고 다른 아동의 나쁜 행동에 쉽게 전염된다. 둘째 자신에 대해 낮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며, 가정이나 학교, 친구들과의

성공적이지 못한 경험들이 변화 잠재력에 대한 포기과 두려움을 갖게 한다. 셋째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화 또는 공포, 슬픔과 시기·질투 같은 감정들을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다루는 감정 조절 기술이 미숙하여, 화 또는 슬픔과 같은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넷째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관계를 확장하는 데 순조롭지 못하다. 다섯째 대부분의 시설아동은 원인을 정확히 밝히기 어려운 학습장애를 경험한다. 이는 대인관계에서도 관계의 장애로 적절한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당하고 그로 인해 학교에서 승인을 얻는 데 실패하게 된다. 여섯째 놀이가 아동의 발달에 있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아동은 놀이의 종류가 한두 가지로 제한되어 있고 반복적인 활동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놀이기술의 제한으로 혼자 놀거나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시설보호 아동은 원가족과의 분리를 경험하면서 부모-자녀 관계의 애착 문제, 심리·정서적 불안, 사회적 위축, 공격성 등의 여러 심리·정서적 문제의 어려움을 갖게 되고(김사라, 2014; 김삼희, 2007), 이러한 심리·정서적 문제가 아동의 이후 심리·사회적 적응 능력과 행동문제에 영향을 주어 시설보호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 성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나타났다(성미영·이순형·이강이, 2001; 장신재·양혜원, 2007; 정선욱, 2002).

B. 또래관계

1. 또래관계 개념 정의

또래란 사전적 의미로는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여 ‘사회적 동년배’ 또는 ‘행동상으로 비슷한 수준에서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황종건·김중서, 1973). 또한 나이, 흥미 등 비슷한 상황의 조건을 가진 또래들이 함께 어울려 이루어지는 집단으로 비슷한 조건이나 목적으로 서로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는 관계로 정의한다(김연화, 2001 재인용).

아동이 또래관계를 통해 자기 새로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집단 소속감을 발달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아동이 또래관계 내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간의 협상과 타협하는 기술을 배우므로 또래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해결방법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 아동들의 또래관계는 성인들과는 다른 자신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그 문화에 맞는 가치관과 행동의 형태를 갖고 상호작용한다(이현진, 2006).

또래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제시하였다(송명자, 1995).

첫째, 또래는 서로에게 중요한 역할 모델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놀이, 운동, 교과학습 등 여러 장면에서 아동들은 또래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며 이를 내면화함으로써 자신의 것으로 삼게 된다. 또한 또래의 성공과 실패를 관찰함으로써 자신이 해야 할 행동과 해서는 안 될 행동을 구별하게 된다.

둘째, 서로에게 중요한 강화자(reinforcer)가 된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학급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아동의 칭찬이나 비난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학급 내에서 서로를 돕고, 협동하며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이 시기 아동들의 긍정적인 사회적 발달을 촉진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아동에게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사회적 비교 (social comparison)의 기능을 갖는다. 입학 전 아동기부터 아동들은 자신이 속한 또래집단에 자신의 성격, 가치, 능력 등을 비추어 비교, 평가하며 이런 평가결과는 자아상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킴으로 사회성 향상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넷째, 또래의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기능이다. 또래는 아동에게 가장 큰 사회적지지를 주는 것은 물론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지지의 범위가 커져가며 또래의 중요성 또한 높아져 간다. 가족이나 또래의 사회적지지 기능이 높게 평가한 아동일 수록 사회적 적응 또한 높다.

이렇듯 아동기의 또래관계는 인간관계 형성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하며,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이루지 못할 때,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갈등과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학교부적응 아동이 되고 사회성이 낮다.

2. 보육시설 아동의 또래관계

시설아동의 또래관계에 관련된 연구들에 의하면, 시설아동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존재로 또래를 인식하며, 교사나 보육교사와 같은 성인의 지지보다도 시설에서 같이 생활하는 또래나 학교 친구의 지지를 더 높게 생각한다(유안진, 한유진, 김진경, 2003 ; 최나야, 2001). 또한 또래들로부터 공격적인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공격적인 행동과 분노표출 등의 공격성을 더 적게 보였다(유안진, 한유진, 김진경, 2003). 그런데 실제로 시설아동은 일반아동보다 또래들로부터 낮은 지지를 지각하고(유안진 외 2인, 2003), 소외감을 더 많이 느끼며(문진명, 2000; 박현숙, 1999),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어려워 타인과 정서적 유대감을 갖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Ziegler & Dalla, 1972). 또한 갈등이나 대립·일방적 주도·무시나 고립과 같은 또래관계의 질의 부정적 요인에서 일반아동에 비해 시설아동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김진경, 2002). 이와 같이 일반아동과 시설아동을 비교해

볼 때, 시설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또래관계 양상이 부적절하고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래집단은 시설아동의 적응에 기여하는 중요한 지지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들은 건강하고 바람직한 또래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즉, 시설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래관계가 긍정적이어야 하는데, 실제로 또래관계의 기술이 일반아동보다 부족하고, 사회적 기술 또한 일반아동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설아동을 위한 다양한 치료프로그램을 통한 또래관계 및 사회성향상이 필요하다.

C. 사회성

1. 사회성의 개념 정의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사회라는 작은 단위의 환경을 부여받고 그가 속한 사회에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래관계나 가정 학교 등을 통하여 점점 더 넓은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사회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사회화란 개개인이 스스로 자신이 속해져 있는 사회의 가치와 규범 태도 등을 내면화하여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응해 나가는 일련의 삶의 한 과정을 이야기한다.

Sarason은 또래나 성인과 함께 유능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술의 습득과 함께 이러한 기술들을 비교적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사회성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정보모는 사회활동이나 집단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좋아하고, 친절하며 협동적인 인간관계와 더불어 적응성이 강한 인간의 특성을 사회성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사회성에 관련된 김성복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측면에서 인간이 남을 모방하고 서로 도와가며 사회의 요구나 제도, 관습들에 맞추어가며 원활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사회에 잘 적응해 가는 성질을 사회성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사회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자들마다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었으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회성(sociability)이란 한 개인이 태어나 자신이 소속된 사회의 문화 속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양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한 사회의 특성인 가치와 신념, 태도와 지식 등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성의 발달은 타인과 관계하는 상호작용 안에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개인과 사회 등과의 관계를 적절히 유지해 나가며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고 타인과 협동할 수 있는 대인관계 능력을 성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성이란 사회라는 환경 속에서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교육과 경험을 통해 삶의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고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인간의 특성이다.

2. 보육시설 아동의 사회성

아동기의 사회성 습득은 아동이 성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가족의 부재로 인하여 밀접한 유대관계 형성이 어려워 일반아동에 비하여 지적인 활동과 정서적 안정감 그리고 사회적 적응이 떨어지게 된다(강영숙, 2010). 이렇게 사회성 습득은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데, 부모는 친구와의 접근방법과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지도하여 사회적 능력을 증진하는 매개가 되기 때문이다(장휘숙, 2010). 그러나 부모의 역할이 제공되지 못할 경우에는 사회성과 또래관계에 영향을 받아 갈등과 충동성을 지니고 부정적인 정서로 인하여 사회적 이해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부모역할의 부재는 시설보호아동 낮은 사회성과 비례하여 사회 부적응을 높게 만든다. Bowlby는 유년기에 5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시설기관에서 보낸 아동과 같은 기간 가정(80%는 바람직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집단을 비교해 본 결과 가정에서 자란 사람의 사회 부적응은 18%로 시설에서 자란 사람의 부적응 34.5%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손경숙 외, 2007, 재인용). 따라서 오랜 기간을 시설에 보낼 경우 사회 부적응적인 문제가 부각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설에서 살고 있다는 열등감으로 인해 또래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쉽게 자신을 노출하지 않으려 할 수 있어 사회성을 형성하는데 제한적일 수 있다(김아름, 2014).

시설보호아동에게 사회 부적응이 발생하는 것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은 일반가정에 비해 통제된 환경으로 온전한 수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시설 내 아동 수에 비해 양육을하는 사회복지사는 한정적이므로 아동 개인별로 적절한 도움과 심층적인 조언을 주기 힘들다. 이러한 환경적인 특성으로 가정과는 다른 분위기가 조성되어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사회성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 기회는 적을 수밖에 없다. 사회성 기술에 대한 피드백 결핍현상이 반복 될 경우 사회

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노현미, 2009).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들과의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 좌절감으로 이어져 인간관계 교류에도 문제가 생겨 사회 부적응 상태가 된다. 이로 인해 인간관계를 맺는데 제한점이 생겨 성격을 상실하거나 개인적인 성향이 발휘되지 못해 생활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시설아동의 책임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욕구좌절로 인해 일반 아동에 비해서 문제원인을 외부환경으로 돌려 자신의 행동에 사회적 책임감이나 도덕적 책임감이 부족하다(김은진, 2001). 이렇듯 시설보호아동은 사회적인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회피하는 성향으로 인하여 또래관계에서 신뢰감이 낮게 형성된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시설 보호 아동의 사회적 특성은 심리적 문제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양육 부재로 인해 심리적, 정서적인 사회적 기술이 습득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며, 이는 사회적 부적응까지 나타난다. 따라서 시설보호 아동에게 체계적으로 사회성을 습득하고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D. 점토 미술치료

1. 점토 미술치료의 개념 정의

점토미술치료란 점토를 활용하여 신체적·심리적 장애를 가진 내담자에게 감각경험을 체험하게 하여 자기발견과 창조적 정신을 자극하여 삶에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도와주며, 심리적 외상을 치료하며 스킨십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 작업과정을 중시하는 미술치료의 한 분야이다.

또한 점토미술치료란 미술치료의 한 부분으로서 입체적이면서도 회화적인 미술치료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점토작업을 통해 심리적인 평형상태를 달성하거나 잠재력을 복구하는 복합적인 미술치료 효과를 가져오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점토미술치료는 점토가 주는 부드러움과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성취감 그리고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애아동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으로 다가온다. 더구나 점토미술치료는 평면과 입체를 함께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평면작업이 적합한 경우와 입체적인 작업이 적합한 경우를 함께 다룰 수 있는 것이다. 또는 입체적인 형태를 먼저 만들고 다시 다양한 색상을 활용한 평면작업, 즉 도화(陶畵)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면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아동들에게는 소근육 발달과 그들의 정서적인 안정감과 창의적인 감각을 유발시키기에 좋은 재료이다. 점토미술치료는 정신적 외상, 공포, 불안의 감정들을 경감시키고 수용할 뿐 아니라 심리적인 평형상태를 경험하게 되어 개인적인 성찰과 통찰력을 통해 자신의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점토미술치료는 치료적인 효과와 아울러 예방의학적인 효과, 그리고 재활의학으로서의 효과도 뛰어난 분야이다. 이렇게 점토미술치료는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분야이며 미래의 대체의학으로 사용될 것이다(한영희,2011). 미술치료는 교육, 재활, 정신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각 예술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인격의 통합

혹은 재통합을 돕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미술치료는 의미 있는 삶의 창조를 위해 예술적 표현이라는 특정의창조적 매체를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미술치료는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미술표현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미술작업을 통해서 환자로 하여금 통찰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미술치료의 목적이다(한국미술치료학회,2000). Kramer(1958)는 인간사회가 존재해 온 이래로, 미술은 개인의 본능적인 충동과 사회의 요구 사이의 영원한 갈등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인간에게 도움을 주었다. 따라서 넓은 의미로 볼 때 모든 미술은 치료적이라고 하였다.

미술치료에서는 재료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컨대, 점토의 경우는 언어가 결핍된 환자나 과도한 언어화와 같은 저항을 가진 환자에게 유용한 매체로 활용되고 있다(전경구,1994). 즉, 어떤 매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치료의 효과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한국미술치료학회,2000). 여러 가지 매체 중 점토는 통합과 자기표현을 끌어내는 치료적 속성이 매우 뛰어나며, 무엇보다 남녀노소, 질환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친근감을 주는 매체이다.

점토가 표현적이고 마술적인 매체로써 사용된 가장 초창기의 기록은 2만 8천년 전 남부 체코슬로바키아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점토는 빙하시대부터 인류 역사상, 조형재료로서 가장 오래된 놀잇감이었고,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사용되었다. 인간은 이미 오래전부터 점토를 사용하여 그릇을 만들고, 그것을 구웠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던 점토는 인간에게 친근하면서도 익숙한 재료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는 점토를 활용한 미술치료가 다른 매체보다 월등히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미술치료 내에서도 점토치료를 따로 분류시켜서 전문화하는 경우도 있다. 점토치료는 환자의 선호도나 치료 효과 면에서 다른 미술치료보다 월등한 위치에 있다(Henley,2005).

이렇듯 점토는 매우 뛰어난 치료적 매체이며, 그 특성을 활용한 점토 미술치료가 보육 시설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2. 점토미술치료의 효과

부드럽고 촉촉한 재료에 몰입하면 누구나 건설적인 퇴행(Constructive regression)의 요소를 경험할 수 있다. 이 재료는 장난스럽게 만지작거리게 만들어 억압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면서 억압된 정서를 점토를 통해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Henly, 2002). Lowenfeld(1957)는 생애 초기동안의 피부 접촉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점토의 모형 만들기 활동은 자기 자각, 자기 인상, 자아 개념을 발전시키며, 자아와 타인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수단이다. 즉, 점토활동은 대상관계 이론의 핵심이 되는 초기의 내면화된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고, 미술치료 관계에서 안전한 틀을 제공한다. 또 그 안에서 대상을 연구하고 경험하며, 자신의 긍정적 인식이 증진되면서 자신의 내면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김동연, 공마리아, 1997). 이렇게 점토매체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는 점토매체가 갖는 여러 장점과 치유의 효과와 동시에 타인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하며, 집단원들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고, 의사소통 방법과 타인을 통한 대리만족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대인관계 능력과 사회적응 능력을 키우고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 성인과 노인, 또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모든 대상에게 매우 적합한 심리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치료의 초기에 집단원간의 친밀감이 형성되기 전부터 가위, 풀, 색연필 등의 개인화 된 재료를 사용하면 정형화된 표현에 익숙해지고 상호교류를 방해가 된다. 하지만 점토는 매체의 특성상 감성적 접근과 유연한 감성표현을 유도하여 집단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쉽게 유발시킨다. 또 무의식적 표현을 촉진시킴으로 집단원 각각의 문제행동의 발견해 집단의 진행과정을 원활하게 이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박지효, 2015). 점토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는 상호작용과 대인관계 경험을 하게함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고(이승미, 2007), 학교부적응 아동의 또래관계 향상과 사회

성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주희연, 2012). 집단 소조활동에서는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경험이 정신지체인의 대인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선행연구를 통해 보고되었다. 집단미술치료에서의 점토활동은 개인의 자기표출 및 성취감을 경험하게 하는 것과 함께 협동작업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경험으로 고립감과 외로움을 감소시키며 만족감과 행복감을 증가시킨다. 또한,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부분을 타인을 통해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그리고 집단 안에서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고 스스로를 치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점토 중심 미술치료 선행연구에 따르면 점토매체를 중심으로 한 집단미술치료는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이것은 점토의 가소성과 촉각성을 활용해 아동이 자유로운 표현과 에너지 발산의 기회와 성취감을 경험하게 하고(주은숙, 2005; 오미리, 2011), 노인에게는 신체 기능의 재활과 유지, 자연적 재료를 통한 과거 회상을 통해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 함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이주남, 2002; 고혜월, 2011; 송영주, 이근매, 김기보, 2012; 박현경, 2014).

이상의 내용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점토매체 중심 집단미술치료는 끈기가 있고, 좋은 촉감을 지닌 점토를 활용하여 매체에 대한 거부감이나 저항 없이 자유롭게 만지고 주무르고 조형하는 활동을 함으로 심리적 안정감과 감정발산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자신의 깊은 내면을 표현하고 이를 스스로 관찰 및 통찰하며 치료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신체 감각을 자극하고 근육의 발달을 촉진하여, 집단구성원들과의 안전하고 긍정적 관계 경험을 통해 자신의 주변 환경을 재구성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는 점토가 가진 재료의 특징으로 자연을 경험함으로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과 즐거움, 부드럽고

촉촉한 재료를 통한 안전한 퇴행과 뭉치고 떼어내고 조합하는 과정들의 경험을 통한 자신의 내면과 환경, 무의식과 의식의 통합을 이루도록 하는 미술매체로서의 놀라운 속성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점토미술치료와 보육시설 아동의 또래관계

생애 초기의 아동은 양육자 중심의 사회적 행동에서 또래관계에 대한 사회적 흥미를 가지며,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한다. 서로를 쳐다보고, 웃고, 만지고, 서로의 행동을 모방한다. 또래관계는 부모-자녀의 관계처럼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로서 동등한 관계이며 권력에서 균형을 유지한다. 그러므로 아동은 또래집단 안에서 서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갈등을 경험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된다. 또래 상호작용은 사회적 기능은 역할 모델로서의 기능, 강화자의 기능, 사회적 비교의 기능, 사회적 지지의 기능을 한다. 아동은 또래가 참여한 다양한 상황에서 또래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는데, 또래 모델의 성공과 실패를 관찰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행동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구별하게 된다(이승미,2007). 또한 또래 상호작용에서 칭찬과 비난에 민감하며, 긍정적인 사회적 발달을 경험하게 하고 또래집단에서 자신의 성격, 능력 등을 비교한다. 이러한 또래 상호작용의 결과는 자아상과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근거가 된다(윤지현,2004).

따라서 아동이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은 사회화 발달을 촉진시키고 성숙한 사회 인지 기능에 중요하다. 하지만 보육시설아동은 시설에서부터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 및 사회성 발달의 기초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에 입학하여 또래관계를 형성하기에 또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전반적인 학교생활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되며, 학교부적응 아동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보육시설 아동은 학교부적응으로 또래에게 거부를 유발시키고, 긍정적인 또래관

계 및 사회성 형성을 발달시키지 못한다. 이렇듯 부정적인 또래관계와 사회성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보육시설 아동에게 점토미술 치료를 통하여 긍정적인 또래관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4. 점토미술치료와 보육시설 아동의 사회성

초등학교 아동의 사회적 행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정원식, 1981).

첫째, 또래 집단에 대하여 민감성을 보이며,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사회화로 전환을 의미하는 중요한 심리적 특성을 보인다.

둘째, 지적 활동시기로서 학업에 있어서 칭찬과 질책이 따르게 된다.

셋째, 집단의 지도자에게 자발적 동조현상을 보인다.

넷째, 나이 어린 아동, 동물이나 여자 아동들을 괴롭힌다.

다섯째, 학업이나 집단활동에서 경쟁을 많이 하게 되며 이 시기에 경쟁은 상당한 동기 유발의 가치를 가진다.

여섯째, 아동은 점차로 감정을 감추는 법이라던가 가장하는 것을 배워간다.

그러므로 학교 내에서 아동이 적절한 사회적 지식과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그 중요성이 크며, 긍정적인 사회성 발달을 의미하며, 이것은 아동의 정체성 확립과 나아가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육시설 영역 내에 교육을 통한 사회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개인에 따라 부정적인 행동특성 및 성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사회적 기술 결함이나 부족에 따른 다양한 문제행동은 아동의 적절한 사회적 관계 형성을 방해할 뿐 아니라, 학업 성취에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특히 본격적인 사회화가 발달하는 초등학교 아동의 경우, 연령에 적합한 사회적 기술을 획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 시기에 획득해야 하는 사회적 기술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데 필요

한 기술, 자기의견을 타인에게 적절하게 표현하고 전달하는데 필요한 기술, 자기 감정이나 행동을 상황에 적절하게 나타내는데 필요한 기술 등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김순태·조용태1998). 따라서교사와 학부모는 물론 아동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동의 사회성과 관련된 보육시설에서의 영향에 관하여 주목해 볼 일이다(황혜자·황유경2001).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사회성에서 어려움을 겪는 보육시설 아동에게 점토미술치료를 통하여 긍정적인 또래관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E. 집단 미술치료

1. 집단미술치료의 개념 정의

집단미술치료는 심리 치료적 이론을 기반으로 집단치료와 미술치료를 통합하여 미술을 주 매체로 사용해 집단을 치료하는 방법을 뜻한다(유미화, 2008). 이때 집단미술치료에서 집단이란 개인들이 모여 탄생된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역동적인 집단을 의미한다(Wadson, 1980).

집단미술치료는 특히 고립과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소속감을 갖게 하고 동일한상황에 처해 있는 구성원들이 서로 문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이혜진, 2011). 이렇듯 집단미술치료에 참여한 집단 구성원은 집단에 대한 믿음과 신뢰성을 가지고 치료에 참여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개방과 자기표현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데, 이때 협동작업을 통해 지지와 치유의 경험을 한 집단 구성원은 긍정적 상호작용을 경험함으로써 사회성 향상과 또래와의 적응적 관계를 형성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집 미술치료는 미술이라는 매체를 통해 내면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집단구성원들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긴장감과 불안감을 완화 시켜나가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표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치료법 중의 하나이다(최선남, 전중국, 1998).

Winnicott(1971)은 집단미술치료가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거나 스트레스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에게 미술 활동 과정을 통하여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Yalom(1995)은 개인 미술치료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집단미술치료에서만 발견되는 치료적 요소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구성원들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모두가 비슷하다는 것을 인식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때 상징이나 경험을 나누는 과정 안에

서 구성원들은 상호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고립감을 점차 감소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한다. 둘째로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구성원들은 함께 상호작용하여 집단 작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서로를 지지하게 되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희망을 주입 시켜 나갈 수 있게 한다. 구성원들의 이러한 행동은 나아가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 작업에서 서로의 감정이나 경험을 듣고 진심으로 지지해주고 수용해주는 과정은 구성원들 개인의 트라우마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다. 이는 개인 미술치료에서도 관찰되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표현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한발 더 나아간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긍정적인 치유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집단미술치료에서만 관찰되는 특별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집단미술치료는 특히 6세에서 만 12세 아동에게 더욱 효과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유미화(2008)는 타인의 입장과 인지 및 사고 등을 추론해 이해해나갈 수 있는 조망 수용 능력이 6세에서 만 12세 시기에 발달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아동기에 집단미술치료에 참여하게 된다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성품을 가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집단미술치료가 방임 아동의 어려운 환경을 변화시켜 줄 수는 없지만, 그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심리치료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신은희, 2005).

2. 집단미술치료의 효과

집단상담은 소수의 사람이 집단이라는 작은 사회적 상황을 형성하여 대인간 및 개인 내적 사건을 경험하면서 상호 성장이나 변화를 도모하는 상담의 한 형태이다. 집단원 상호간에 신뢰감이 형성되면 집단원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노출할 수 있고 자기를 발견하게 되며 자신의 느낌 및 신념과 행동을 용납하게 된다. 또한 하나의 역동적인 대인관계의 과정이며, 지속적인 상호관계를 통하여 개인은 학습하고 적응하게 된다(정성란 외, 2013). 미술치료는 궁극적으로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미술작업 활동을 통해 심리를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심리치료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조형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갈등을 조정하고, 동시에 자기표현과 승화작용을 통해서 자아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자발적 미술활동을 통해서 개인이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를 연결하여 조화로운 발달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이근매, 2008). 미술치료의 장점을 요약해보면 첫째, 미술작품 속에 심상을 표현할 수 있어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면의 억압된 감정을 해소시키고 잠재적 긴장과 불안을 완화시켜 자기치유적인 힘을 발휘한다. 또 언어로 잘 표현되지 않는 성격의 단면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비언어적 수단으로 통제를 적게 받아 방어를 감소시킬 수 있다. 가끔 창작자가 의도한 것과 다른 예상하지 못했던 작품이 완성되는데 이는 내담자의 통찰, 학습, 성장으로 유도되기도 한다. 셋째, 즉시성과 영속성이 있다. 구체적 유형의 결과물을 즉시 얻을 수 있고, 작품을 재검토하여 작품이 변화된 과정을 알 수 있다. 이는 자기탐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감정변화를 잘 이해하고 직면하는데 도움을 준다. 넷째, 미술작품 자체가 즐거움과 흥미를 유발시켜 창조적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고, 심리적 긴장과 이완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다섯째, 미술작품을 제작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자연스럽게 전

달하고, 유연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인 자기감정을 안전하게 충분히 표출함으로써 긍정적으로 순화하게 한다. 나아가서 문제해결에 필요한 태도를 습득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대인관계 향상에 도움을 준다(김갑숙 외, 2014; 김민채, 2016; 이근매, 2008).

집단미술치료는 집단치료와 미술치료가 결합된 것으로, 집단치료가 갖고 있는 관계성으로부터 촉진되는 치료적 힘과 미술작업을 통한 이미지 창조 작업이 가지는 치료적 힘을 통해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황은일, 2014). 집단미술치료는 개인이 집단 구성원과 동등한 느낌을 가진다. 또 서로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집단원 각자가 내재화된 이미지에 의해 경험과 체험을 하게 된다. 이에 집단원 개개인은 집단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서로의 미술작품을 보완하거나 도와주는 과정에서 감정교류와 조정을 하며 타인을 돕고 있다는 존중감을 향상시킨다. 또한 하나의 완성된 작품으로 이야기 나누는 것은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따라서 정보교환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가르쳐주는 기회를 얻으며 자연스러운 상호작용과 대인관계 형성에 효과적이다(최석임, 2015; 황은일, 2014).

집단미술치료의 장점은 첫째, 미술을 사용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수준에서 동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명료화 시키는 작업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집단의 경험을 통합시킬 수 있다. 또한 상호작용을 통한 변화를 추구하므로 개인치료에서는 얻을 수 없는 새로운 잠재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둘째,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환상이나 무의식을 표현하고 쉽게 이해하게 된다. 그림을 통해 내면세계에 간직한 감정을 꺼내고 해소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얻는 것과 함께 감정교류의 조정 역할도 한다. 이는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를 의식하도록 도와주며 상대를 이해하는데 효과가 있다. 셋째, 미술은 재미있으며 집단 내에서 즐거움을 공유하게 한다. 집단원들은 미술작업 이후에도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어 창조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

결하고, 직관을 갖고 자아실현을 이루며 융통성 있는 태도를 갖추게 된다. (최선남 외, 2007; 한국미술치료학회, 2000; 황은일, 2014). 즉 집단미술치료는 미술매체의 사용과 집단원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직간접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대인관계 향상과 자아성장을 통한 사회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3. 집단미술치료와 보육시설 아동의 또래관계

Rubin(2001)에 의하면 집단미술치료란 집단 안에서 자기표현과 자기개방에 따른 집단원간 믿음과 응집력이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 집단원에게 수용과 이해의 치료적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미술의 창의적 표현을 통해 본인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된다(박인숙, 이현림 2008). 그리고 집단미술치료는 보육시설 아동의 또래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어내게 만들고, 갈등 해결 방법, 의사소통능력, 격려하는 태도 등의 사회적 기술을 발전시킨다(김효지, 2010). 보육시설 아동의 또래관계 변화에 도움이 되는 집단미술치료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타인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셋째, 타인과 함께 많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한다.

넷째,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게 된다.

다섯째, 집단 내 소속감을 통해, 본능적으로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를 만족시킨다.

여섯째, 아동들이 교사의 보호나 통제에서 벗어나 작업활동 및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 독립심을 기를 수 있다. 이렇게 집단미술치료 과정에서 집단원끼리 서로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경험이나 의견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정보교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행동 방식이나 감정 또는 사고를 모방하는 모방적 행동이 촉진되면서 긍정적인 또래관계가 향상된다(박인숙, 이현림 2008). 신기은(1999)은 집단미술치료가 집단 안에서 신뢰적 분위기

형성과 긍정적 또래관계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또래들과 함께하는 집단 미술치료는 집단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긍정적인 치유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집단미술치료가 자아존중감 향상, 또래관계 증진, 사회성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4. 집단미술치료와 보육시설 아동의 사회성

아동기는 가정과 더불어 새로운 환경인 또래집단이나 학교, 사회와의 관계를 갖게 되는 시기이며, 규칙적인 생활과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또래와 집단을 이루어 사회성을 발달시켜 나가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가정환경과 부모의 역할은 아동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 잘 적응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며 매우 중요하다.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여성의 교육의 기회가 증대되고 다양한 직업이 생겨남에 따라 여성의 취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활성화 되고있는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해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출산율이 저조해지는 현상이 두드러져 가정마다 자녀의 수가 점차 줄어들어 무자녀 또는 외동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현대사회의 아동들은 가족간의 부족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되며, 아동들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내세우며 고집스럽고 타협할 줄 모르는 태도를 가지게 되며 주변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 이는 아동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거나 배려하지 못해 집단생활에서의 다양한 문제점으로 야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인위적인 형태의 집단활동을 통해 또래간의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억압된 개인의 정서를 보다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표출할 기회를 갖도록 독려해야 한다.

집단미술치료 활동은 구성원간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노력하며 즐거움을 공유하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하며 정서적인 유대감과 소속감을 경험하고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므로 사회성 문제를 지닌 아동과

정상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스스로 독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아동기에 형성되는 사회성에 대한 부분이 최근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치료기법들이 개발되어 쓰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집단원들과의 의사소통을 직간접적으로 나누는 집단 심리 활동 프로그램에 미술을 도입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상호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 활동프로그램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잠재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아동의 정서적, 유대감 긍정적 상호작용 대인관계 능력의 형성에 있어 집단미술치료가 아동의 사회성과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A. 연구대상

1. 집단 구성원 개인별 특성(통제집단)

본 연구에서는 목포시 S동에 소재하고 있는 보육시설에서 적응적인 또래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성이 떨어져 문제행동을 보이는 초등학생 4-6년 7명을 보육시설 복지사 선생님들에게 추천받았다. 아동의 성별은 남 3명, 여 4명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특성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2> 통제집단 대상자의 특성

학년	이름	성 별	가정환경	아동의 심리. 정서적 특성
4 학 년 (11세)	(A)	남	-부모이혼 가정 -부의 폭력성 및 불안한 가정환경으로 입소함,	-사소한 일에도 눈물로 감정표현을 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하려 함. -친구와 놀이에 있어 타협하기를 싫어하고 자기주장이 강함.
5 학 년 (12세)	(B)	남	-다문화 이혼가정 -부는 연락 가능. -가족의 이야기를 하기 싫어함.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게 되면 참지 못하고 폭력을 사용하며, 흥분을 잘 가라앉지 못함. -평소에 축구나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며, 수업할 때는 집중력이 짧고 참여도가 낮음.

	(C)	남	-부모 이혼 -가정환경으로 인한 높은 불안감으로 입소 -ADHD 약물복용 중	-평소 산만하고 집중력이 부족한편이며, 거친 욕설을 많이 사용함으로 또래들에게 불편함을 많이 줌. -평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울리지 못함
	(D)	여	-모, 언니(3인가정) -부모이혼 -언니와 함께 입소	-친구들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먼저 쉽게 다가가지 못함. -감정을 표현하는데 미숙하며 눈물로 감정을 표현함. -타인에게 의존적이며 과제를 스스로 잘 하지 않음.
	(E)	여	-모(2인가정) -모의 학대로 입소	-또래들과 함께 있을 때 매우 자기중심적이며 무관심한 척 표현함. -자신의 뜻과 원하는 것에 맞지 않으면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고집스러움.
6 학 년 (13세)	(F)	여	-모, 동생(3인가정) -부모 이혼 -동생과 함께 거주	-또래들과 친해지고 싶어하는 욕구는 보임. -어울리는 방법의 어려움이 보임, -소극적, 감정표현의 어려움.
	(G)	여	-모(2인가정) -다문화가정 -이혼가정	-눈치를 많이 보고 잘 보이고 싶어하는 욕구가 보이나 자기표현에 어려움이 있음. -어른과 대화는 곧 잘하나, 또래들과 어울리는 것은 어려워함.

2. 집단 구성원 개인별 특성(실험집단)

본 연구에서는 압해도 S읍에 소재하고 있는 보육시설에서 적응적인 또래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성이 떨어져 문제행동을 보이는 초등학생 5-6년 7명을 보육시설 복지사 선생님들에게 추천받았다. 아동의 성별은 남 4명, 여 3명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특성은 다음<표 4>과 같다.

<표 3> 실험집단 대상자의 특성

학년	이름	성별	가정환경	아동의 심리, 정서적 특성
5학년 (12세)	(H)	여	-모, 언니(3인가정) -모의 학대, 방임 -언니와 원내거주	-선생님 또는 어른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이며 또래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언니만 따르는 경향이 있음. -친구와 놀이에 있어 타협하기를 싫어하고 자기주장이 강함.
	(I)	남	-부모, 동생2명 (5인가정) -부는 연락가능, 모는 연락두절 -동생 원내거주	-자기의 표현을 잘 하지 않으며 매사에 의욕이 없다. -또래 관계에 있어 놀리는 것을 주도하기도 하며 타인을 무시하거나 공격적인 경향이 있음.
	(J)	남	-부모 연락두절 -뇌병변 3급 장애를 가지고 있음 -ADHD 약물복용 중	-집중력이 부족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않으면 머리를 박는 등의 행동을 보임 -주의가 산만하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울리지 못함.

6학년 (13세)	(K)	남	-부는 연락가능, 모 는 연락두절 -형, 동생 원내거주	-주위가 산만하며 집중력이 짧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매우 변명을 늘어놓음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은 무관심하며 친구들을 놀리는데 협조하는 등의 행동을 해 또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음.
	(L)	남	-모(2인가정) -모의 학대로 입소	-또래관계 형성의 욕구는 크나 자기를 표현하는데 매우 소극적이며 목소리가 작음. -자신의 뜻과 원하는 것에 맞지 않으면 우는 문제행동 및 경향
	(M)	여	-부모 이혼 -언니(중3)과 원내 거주	-말투가 어눌하며 잘 전달하지 못함. -화가나면 주변 친구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 고집부리는 경향이 있 음. -언어치료 중 -심한지적장애 등급
	(N)	여	-모, 동생(3인가정) -모의 학대, 방임 -동생과 원내거주	-눈치를 많이 보고 자신에 대한 불안감과 낮은 자신감으로 자기 표현에 어려움이 있음. -상대방과 쉽게 어울리지를 못함 -또래관계 속 공격적인 언어나 지시적 표현방식을 사용함.

본 연구는 윤리적인 면을 고려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수집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적인 자료의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또한 대상자는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고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통제집단은 실험집단 프로그램 종료 후 본 프로그램과 같은 목적으로 진행하여 대상자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였다.

B. 분석방법

1. 또래관계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또래관계 검사는 Furman(1985)이 개발한 척도를 번안하여 박인숙(2008)이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거친 또래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전체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 지지, 처벌 주도권, 친밀, 우의, 대립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형 척도로 부정문은 역으로 채점하였고(2,8,13,19,21,24,30,32),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또래관계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하위영역과 문항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4> 또래관계 검사 하위영역 및 문항구성

하위 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사회적지지	3,4,6,7,9,11,14,15,17,18,20,22,25,26,29,31,33	17	.89
처벌주도권	*8,*19,*21,*30,*32	5	.81
친 밀	5,10,16,27,28	5	.79

우 의	1,12,23	3	.85
대 립	*2,*13,*24	3	.82
전 체	합계: 총 문항 33문항 x 5점 = 165점	33	

*2,8, 13, 19,21,24,30,32(부정적 문항임)

2. 사회성 검사

본 연구에서 사회성은 초등학교에서 평가하고 있는 아동의 행동발달 영역인협동성, 준법성, 사교성, 자주성의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사도구로는 정범모(1971)가 제작한 초등학교 인성검사지 중 사회성을 검사하기 위한 내용을 바탕으로 김화정(2002)이 수정, 보완한 것을 박지효(2014)가 재사용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 도구는 준법성 4문항, 협동성 9문항, 사교성 11문항, 자주성 6문항으로 4개 하위 영역에 걸쳐 총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 하위영역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표 7>과 같다.

검사문항은 긍정적 문항과 부정적 문항이 혼합되어 있고, 각 문항은 3점 Likert척도로서 ‘예’는 3점, ‘보통’은 2점, ‘아니오’는 1점을 부여하였으며, 부정적 문항은 역으로 채점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5> 아동용 사회성 검사의 하위영역 및 문항구성

구성요안	문항 번호	문항수	신뢰도
준법성	5,16,19,22	4	.89
협동성	1,4,13,15,18,23,26,27,30	9	.78

사교성	2,3,6,7,8,10*,14,17,20,21,25	11	.88
자주성	9,11,12,24,28,29	6	.90
전 체	30문항 x3점 =90점	30	

‘*’ 은 부정적 문항임

아동용 사회성 검사 도구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준법성은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규칙이나 규범을 지키는 상태를 측정하는 영역이다.

둘째, 협동성은 남의 일을 잘 돕고 남의 처지를 잘 이해하며 집단활동에 즐겨 참여하고 집단이 결정한 사항을 지키는 상태를 측정하는 영역이다.

셋째, 사교성은 친구를 잘 사귀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남에게 친절하고 씩씩한 성질로 사회를 형성하려는 인간의 상태를 측정하는 영역이다.

넷째, 자주성은 자기의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며 자기의 의견을 정당하게 주장하는 상태를 측정하는 영역이다.

3. 동적 학교생활화 그림검사 (KSD:KineticSchoolDrawing)

KSD는 KFD(KSD:KineticSchoolDrawing)를 보충하기 위해 Prout와 Phillips(1974)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되었으며 아동이 학교 내에서 그들과 관계된 인물인 학교의 친구와 선생님을 포함해서 그림을 그리게 하여 학급 내 사회적 위치나 역할, 적응 상태, 학교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즉, 학교에 관한 학업 인식이나 그 밖의 자기 인식, 아동의 교사상, 친구상과 친구관계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a. 진행방법

준비물은 A4용지 1매와 4B 또는 2B연필과 지우개이며, 상담사가 종이와 연필 지우

개를 준비해 제시하고 지시사항에 따라 그림을 그리도록 한다. 그림을 그릴 때, 지시어는 다음과 같다. “당신 자신을 포함하여 선생님과 한 명 이상의 친구가 학교에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세요, 만화나 막대기 같은 사람이 아닌 완전한 사람을 그려주세요, 모두가 무엇이든 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도록 하세요, 당신 자신도 그리는 것을 잊어선 안 됩니다.” 라고 지시하며 용지의 방향이나 그 외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세요” 라고 대답함으로 어떠한 단서도 주지 않는다.. 그림을 그린 후, “그림을 그린 순서를 말해주세요.” “그림 속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그림 속의 인물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등의 여러 가지 질문을 행하여 피검자의 학교생활을 분석한다.

b. 해석

KSD,의 해석은 일반적으로 KFD 진단기준에 준하며 KFD와 마찬가지로 크게 5가지의 영역으로 인물상의 행위(actions), 양식(styles), 상징(symbols), 역동성(dynamics), 특성(figure characteristics)으로 나누어진다. 인물상의 행위는 행위의 상호작용 측면과 각 인물상의 행위 중심으로 학교 내의 역할 유형을 알아보는 영역이며, 양식은 구분, 포위, 가장자리, 인물하선, 그림 상부의 선, 그림 하부의 선을 보는 영역이다. 그리고 상징은 사물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뜻하는 영역이고, 역동성은 인물 묘사의 순위, 인물상의 위치, 인물상의 크기, 인물상 간의 거리, 인물상의 얼굴의방향, 인물상의 생략,타인의 묘사 등이 속하는 영역이다. 또한 특성은 음영이나 갈기기, 윤곽선 형태, 신체부분의 과장, 신체 부분의 생략, 얼굴표정, 의복의 장식, 회전된 인물상, 정교한 묘사, 필압을 보는 영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미술치료사 1인으로 구성하여 연구자의 목적에 맞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사전·사후 그림 검사를 분석하였다.

C. 연구절차

1. 치료기간 및 장소

본 연구 집단 프로그램은 신안군 0읍에 위치한 S보육시설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총 14회기로 초기단계 3회기(1회기~3회기), 중기 1단계 7회기(4회기~7회기), 중기2단계 10회기 (8회기~10회기), 종결단계 4회기(11회기~14회기)로 구성되어 있다. 장소는 보육시설 내에 있는 집단상담실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통제집단은 목포시 0동에 위치한 0보육시설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험집단과 마찬가지로 각각 한 달 차이를 두고 진행하였으며 장소는 보육시설 내에 있는 집단상담실에서 실시하였다.

2. 절차일시

본 연구에서 효과검증을 위한 진행 절차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6> 연구 진행절차

일시	내용
2022년 2월	연구설정
2022년 3월~4월	대상자 선정 및 자료수집
2023년 5월~9월	통계분석
2023년 10월~12월	검증 및 결론

D.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1. 프로그램의 구성 배경 및 단계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시사점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억압되어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 시키기 위해 난화, 점토, 만다라를 활용하였으며, 이 매체들은 부정적 감정표현에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중 점토 활용 기법은 자신의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부담감을 감소시켜 자신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성 및 대인관계 향상에 효과적인 기법은 공동화 작업과 선물 만들어 교환하기, 친구 만들기 등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단계별 목표에 따른 구성을 살펴보면 초기 단계에서는 심리적 이완과 자유로운 표현, 중기단계에서는 자기감정 이해, 긍정적·부정적 감정표현(이병주, 2008), 후기단계에서는 긍정적 자원 찾기를 통해 긍정적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협동화를 통한 적응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함으로써 사회적 기술습득에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2. 단계별 목표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단계별 목표에 따른 구성을 살펴보면 초기 단계에서는 심리적 이완과 자유로운 표현, 중기단계에서는 자기감정 이해, 긍정적·부정적 감정표현, 나의 지지자원 인식, 후기단계에서는 협동화 작업을 통해 또래관계 및 사회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초기단계(1회기-3회기)에서 집단 내에 안정된 분위기를 형성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유발을 위해 집단원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탐색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집단 내에서 자신을 개방함으로써 집단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여 자신의 내면

과 타인의 내면을 탐색할 수 있도록 점토를 활용한 무의식적 자기 탐색과 자기 인식하기를 주요 기법으로 활용하였다.

중기단계(4회기-10회기)는 자신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던 대상과의 부정적 경험을 조명할 수 있는 미술치료 기법을 도입하여 내재된 부정적 감정을 표현·표출하도록 하여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이미지 떠올리기고 자기감정 표현과 타인의 감정 인식하기 등 작업을 주요 기법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나의 긍정적 지지자원을 찾아봄으로 타인과 나의 관계를 탐색하고 지지받은 경험을 통해 긍정적 상호작용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종결단계(11회기-14회기)는 협동화를 통해 사회적기술 습득으로 사회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서로의 손 만들기, 우리들의 희망 나무, 선물하기를 주요 기법으로 활용하였으며 단계별 치료목표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7>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 단계별 목표

단계	회기	목표 내용
초기	1-3회기 (친밀감 형성 및 긴장이완)	- 치료사와 친밀감 형성 및 신뢰감 형성 - 활동에 대한 흥미 유발 및 긴장 이완 - 집단원 파악 및 교우관계 파악
중기	4-7회기 (자기탐색 및 자기표현) 8-10회기 (긍정적 사고인식 및 긍정적 관계 경험)	- 작업을 통하여 자기탐색 및 긍정적 자기표현 - 억압된 스트레스 해소 및 자신감 회복 - 나의 지지자원 인식을 통한 자존감 향상
종결	11-14회기 (사회적 기술 습득을 통한 사회성 증진)	- 성취감 형성 및 자존감과 효능감 향상 - 협동하기 작업을 통한 상호작용 촉진 및 또래관계 개선 및 사회성 증진

3. 프로그램 회기별 진행 절차

본 연구 점토 매체를 중심으로 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총 14회기로 매회 60분의 활동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매회기마다 도입(워밍업), 전개(작품 활동), 마무리 및 정리로 구성되었고, 전체 시간은 60분 내외로 소요되었으며, 점토 매체를 중심으로 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단계별 내용은 회기에 따라 다소 융통성 있게 진행하였다. 회기별 진행 과정을 요약하면 <표 10>과 같다.

<표 8> 프로그램 회기별 진행 절차

단계	내용	시간
도입	-인사 나누기 -프로그램 목적 및 활동 내용 설명하기	5분
전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활동 수행하기(30분) -자신과 타인에 대한 작품 감상한 후 발표하기(15분)	45분
마무리	-각 집단원간 느낀 점 나누기 -주변 정리하고 다음 회기 안내하기	10분

4.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본 연구는 사회적 기술 습득의 어려움과 타인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미숙하여 원만한 또래관계 형성 및 사회성을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이 점토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집단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 기술향상을 통한 긍정적 상호작용 및 사회적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또래관계 및 사회성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주희연(2012), 홍은경(2014), 김하늘(2014), 김현정(2011)의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표 9〉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단계	회기	목표	활동	회기별 목표	준비물
초기 (친밀감 형성 및 흥미 유발)	1	사전 검사	*사전검사(KSD그림검사, 또래관계검사, 사회성검사) -검사를 통해 현재 심리상태 살펴보기	-현재 정서 탐색 -또래 및 가족 관계 탐색	검사지 A4, 연필, 지우개
	2	친밀감 형성 및 흥미	*명찰 만들기 -프로그램 소개 및 상담 구조화 -흰 접시 위 이미지를 떠올려 별칭을 정하고 꾸미기	-친밀감 형성 -흥미 유발	도화지, 명찰, 흰접시, 채색도구
	3	흥미 유발	*점토로 무엇을 만들까? -매체를 탐색한 후 자신이 만들	-흥미 유발 -긴장 완화	옹기토, 싸인펜,

		고 싶은 작품을 자유롭게 만들어 표현하기		흰접시
--	--	------------------------	--	-----

중 기 1 (자 기 탐 색 및 관 계 인 식)	4	자기 탐색	* 나와 닮은 멋진 동물은? -나를 나타내는 동물을 생각해 보고 표현하기 -나와 닮은 동물 소개하기	-내면 탐색 -긍정적 자기 표현	클레이, 흰 접시
	5	자기 표현 및	*우리들의 동물 마을 -연결작업(물감칠하기) -나를 포함한 동물 친구들이 같 이 사는 마을은 어떨지 집단원 과 함께 꾸미기	-자기표현 -자기와 협동 을 통한 관계 인식	우드락, 클레이, 글루건, 물감
	6	자기	* 화난 모습과 화의 해결사 -화나게 만드는 것은 어떤 것들 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표현하기 -화를 현명하게 풀어내는 방법 을 찾기	-부정적 감정 표출 -자기인식 및 타인인식	칼라 점토, 엽서(내가 찾은 방법 적기), 흰 접시
	7	자기 및 타인 인식	*우리들의 감정 파이 -최근 일주일간 느꼈던 다양한 감정들을 종이접시 위에 다양한 색과 크기에 따라 면을 나눠 표 현하기 -2절지에 감정만다라 붙이고 함 께 주변 꾸미기	-자기감정 인 식 -타인인식 -협동	칼라 점토, 종이 접시, 매직

중 기 2 (금 정 적 사 고 인 식 및 금 정 적 관 계 경 험)	8	지지 자원 인식	*고민 친구 -자신의 고민이나 비밀 이야기를 들어 줄 수 있는 친구 만들기	-나의 지지자원 찾기	지점토, 수채화 물감, 붓
	9		*소중한 그릇 -옹기토 점토를 활용한 자기표현 -그릇에 담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만들고 이야기 나누기	-나의 긍정적 자원 찾기 -자신감 부여	옹기토, 흰 접시, 찰흙도구
	10		*나를 지켜주는 존재 -자신에 대해 소중한 것과 나를 지켜주는 존재가 누구인지 떠올려보고 가면 꾸미기	-자존감 향상 -자신감 향상	아이폼, 가면

종 결 (사 회 적	11	협동 하기 및 긍정 적	*소중한 친구 손 -서로 짝과 함께 서로의 손 만 들어 주기 -손을 본뜬 후 물감으로 꾸며주고 전시하기	-긍정적 상호 작용 -협동하기 -자존감 향상	지점토, 리스, 물감 흰 접시
------------------------	----	--------------------------	---	--------------------------------	---------------------

기술 습득)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들의 희망 나무 -집단원은 내가 되고 싶은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 희망 나무 만들기 -엽서카드 붙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감 부여 -협동하기 -긍정적 상호 작용하기 	우드락, 클레이, 다양한오브제
	13	상호 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마운 자신과 친구들에게 선물하기 -아이클레이를 이용하여 만들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만들어서 자석과 브로치 핀을 뒤에 붙여 다음, 자기 자신과 고마운 친구들에게 선물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취감 형성 -긍정적 상호 작용 	아이클레이, 자석, 브로치핀, 글루건, 선물 봉투
	14	사후 검사	*사후검사(KSD그림검사, 또래관계검사, 사회성검사)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 파악	검사지 A4, 연필, 지우개

E. 자료분석 및 통계

본 연구는 정토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보육시설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사전검사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실험집단, 대기집단)과 검

사 (사전검사, 사후검사)에 따른 또래관계와 사회성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회기별 관찰 기록지, 요인 별 개인작품 변화를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집단미술치료는 사전에 연구동의서를 받고 시행을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실시하였다.

점토 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고학년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또래관계 검사’와 ‘사회성 검사’를 사전, 사후로 실시해 그 변화를 비교하였다. 또래관계 검사의 하위영역별(사회적지지, 처벌주도권, 친밀, 우의, 대립)점수를 사전·사후로 그 변화를 비교하였으며, 사회성 검사의 하위 영역별(준법성, 협동성, 사교성, 자주성)점수를 사전·사후로 그 변화를 비교하였다. 또한 대인관계 및 학교에서의 개인별 역동성과 정보를 측정하기 위해 동적 학교생활화(KSD)그림검사를 실시하였고, 연구자와 보조 미술치료사 1인에 의해 사전·사후 변화를 5가지 영역(인물상의 행위, 양식, 상징, 역동성, 특징)으로 비교 분석하여 그 변화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점토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아동 개인의 프로그램 단계별(초기-중기1-중기2-종결기)로 어떠한 행동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 실시 전에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상담과 프로그램 후에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상담을 실시하여, 아동의 행동 변화를 비교하였다.

또한 동적 학교생활화(KSD)그림검사의 사전·사후검사에 대한 질적분석은 본 연구자와 1인의 보조치료사가 각각의 그림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논의를 통해 결정하였고 신뢰도 충족을 위해 미술치료 수련 감독전문가의 감수를 받았다.

IV. 연구 결과

A. 기술통계

본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수 측정치의 범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를 정리한 결과는 <표 10>와 같다.

<표 10> 변인별 기술통계량 결과 분석

(N=14)

구분		범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또래관계	우의	사전	2.00	1.67	3.67	2.690	.562	
		사후	2.67	1.67	4.33	3.167	.903	
	대립	사전	1.33	1.33	2.67	2.000	.413	
		사후	3.00	1.00	4.00	2.476	.940	
	사회적지	사전	1.24	1.47	2.71	1.958	.418	
		지	사후	2.59	1.35	3.94	2.563	1.027
	친밀	사전	2.80	1.00	3.80	1.971	.873	
		사후	3.00	1.20	4.20	2.443	1.185	
	처벌주도	사전	1.00	1.60	2.60	2.129	.347	
		권	사후	2.60	1.60	4.20	2.800	.874
	사회성	준법성	사전	1.00	1.00	2.00	1.482	.302
			사후	1.75	1.00	2.75	1.804	.644
협동성		사전	.56	1.11	1.67	1.397	.178	

	사후	1.33	1.33	2.67	1.881	.496
사교성	사전	.45	1.27	1.73	1.513	.154
	사후	1.45	1.27	2.73	2.013	.524
자주성	사전	.67	1.17	1.83	1.524	.205
	사후	1.50	1.17	2.67	1.952	.568

B. 동질성 검증을 하기 위한 t-test

본 연구에서는 실험집단과 대기집단의 사전검사 점수가 동질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N=14)

<표 11> 사전 동질성 검증 결과

구분	통제집단(n=7	실험집단(n=7	t	p
))		
	M(SD)	M(SD)		
또래관계 총점	1.957(.214)	2.342(.272)	-2.938	.012
우의	2.619(.621)	2.762(.544)	-.461	.653
또래관계 대립	1.857(.504)	2.143(.262)	-1.331	.208
사회적지지	1.740(.276)	2.177(.438)	-2.236	.045
친밀	1.486(.398)	2.457(.971)	-2.449	.031
차별주도권	2.086(.398)	2.171(.315)	-.447	.663

	사회성 총점	1.461(.094)	1.497(.160)	-.504	.624
	준법성	1.321(.189)	1.643(.318)	-2.298	.040
사회성	사교성	1.571(.146)	1.455(.148)	1.486	.163
	협동성	1.476(.153)	1.318(.175)	1.806	.096
	자주성	1.476(.150)	1.571(.252)	-.859	.407

M=평균 SD=표준편차 P=유의확률

<표 11>에 보이듯이 또래관계는 사회적지지($t=-2.236, p=.045$), 친밀($t=-2.449, p=.031$)은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우의($t=-.461, p=.653$), 대립($t=-1.331, p=.208$), 처벌주도권($t=-.447, p=.663$)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 사회성은 준법성($t=-2.298, p=.040$)은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사교성($t=1.486, p=.096$), 협동성($t=1.806, p=.163$), 자주성($t=-.859, p=.407$)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 총점이 또래관계($t=-2.938, p=.012$), 사회성($t=-.504, p=.624$)로 큰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따라서 두 집단은 동질한 집단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C.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또래관계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표 12> [(검사1)] 또래관계 사전검사 평균차이 검증

변수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
사전 총점	통제	7	1.957	.214	-2.938	.012
	실험	7	2.342	.272		
우의	통제	7	2.619	.621	-.461	.653
	실험	7	2.762	.535		
대립	통제	7	1.857	.504	-1.331	.208
	실험	7	2.143	.262		
사회적지지	통제	7	1.740	.276	-2.236	.045
	실험	7	2.177	.438		
친밀	통제	7	1.486	.398	-2.449	.031
	실험	7	2.457	.971		
처벌주도권	통제	7	2.086	.398	-.447	.663
	실험	7	2.171	.315		

$p < .05$ $P < .01$ $P < .001$

<표 12>는 또래관계 5개 변수에 대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사전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검증 결과, 사회적지지($t=-2.236$, $p=.045$), 친밀($t=-2.449$, $p=.031$)은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우의($t=-.461$, $p=.653$), 대립($t=-1.331$, $p=.208$), 처벌주도권($t=-.447$, $p=.663$)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 이것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또래관계 사전검사 결과 사회적지지, 친밀 변수를 제외하고 우의, 대립, 처벌주도권의 평균이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13> [(검사2)] 사회성 사전검사 평균차이 검증

변수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
사전 총점	통제	7	1.461	.094	-.504	.624
	실험	7	1.497	.160		
준법성	통제	7	1.321	.189	-2.298	.040
	실험	7	1.643	.318		
사교성	통제	7	1.571	.146	1.486	.096
	실험	7	1.455	.148		
협동성	통제	7	1.476	.153	1.806	.163
	실험	7	1.318	.175		
자주성	통제	7	1.476	.150	-.859	.407
	실험	7	1.571	.252		

$p < .05$ $P < .01$ $P < .001$

<표 13>은 사회성 4개 변수에 대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사전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준법성($t=-2.298$, $p=.040$)은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사교성($t=1.486$, $p=.096$), 협동성($t=1.806$, $p=.163$), 자주성($t=-.859$, $p=.407$)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회성 사전 준법성을 제외한 사교성, 협동성, 자주성의 평균이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14 > [(검사3)] 또래관계 사후검사 평균차이 검증

변수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
사후 총점	통제	7	1.842	.257	-15.24	.109
	실험	7	3.538	.144		
우의	통제	7	2.381	.488	-7.259	.000
	실험	7	3.952	.300		
대립	통제	7	1.762	.686	-4.439	.001
	실험	7	3.191	.504		
사회적지지	통제	7	1.639	.291	-9.034	.000
	실험	7	3.487	.457		
친밀	통제	7	1.400	.306	-7.767	.000
	실험	7	3.486	.641		
처벌주도권	통제	7	2.029	.390	-7.933	.000
	실험	7	3.571	.335		

$p < .05$ $P < .01$ $P < .001$

<표 14>는 또래관계 5개 변수에 대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사후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검증 결과, 대립은($t=4.439$, $p=.001$)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우의($t=-7.259$, $p=.000$), 사회적지지($t=-9.034$, $p=.000$), 친밀($t=-7.767$, $p=.000$), 처벌주도권은($t=-7.933$, $p=.000$)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것은 통제집단보다 실험집단이 또래관계의 우의, 대립, 사회적지지, 친밀, 처벌주도권의 사후평균이 모두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15 > [(검사4)] 사회성 사후검사 평균차이 검증

변수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
사후 총점	통제	7	1.423	.081	-9.794	.068
	실험	7	2.402	.252		
준법성	통제	7	1.250	.204	-6.819	.000
	실험	7	2.357	.378		
사교성	통제	7	1.444	.128	-7.778	.000
	실험	7	2.318	.168		
협동성	통제	7	1.546	.148	-8.505	.000
	실험	7	2.481	.250		
자주성	통제	7	1.452	.209	-7.799	.000
	실험	7	2.452	.267		

$p < .05$ $p < .01$ $p < .001$

<표 15>는 사회성 4개 변수에 대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사후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검증 결과, 준법성($t=-6.819$, $p=.000$) 사교성($t=-7.778$, $p=.000$), 협동성($t=-8.505$, $p=.000$), 자주성($t=-7.799$, $p=.000$)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결과로 이것은 통제집단보다 실험집단이 준법성, 사교성, 협동성, 자주성의 사후평균이 모두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16> [대응표본(검사5)] 통제집단 또래관계 사전사후 평균차이 검증

변수	검사유형	N	평균	표준편차	t	p
또래관계 총점	사전	7	2.1497	1.957	3.013	.024
	사후	7	2.6897	1.842		
우의	사전	7	2.619	.621	1.987	.094
	사후	7	2.381	.488		
대립	사전	7	1.857	.504	.795	.457
	사후	7	1.762	.686		
사회적지지	사전	7	1.740	.276	1.867	.111
	사후	7	1.639	.291		
친밀	사전	7	1.486	.398	1.441	.200
	사후	7	1.400	.306		
처벌주도권	사전	7	2.086	.398	1.000	.356
	사후	7	2.029	.390		

$p < .05$ $P < .01$ $P < .001$

<표 16>은 통제집단에서 또래관계 5개 변수에 대한 사전사후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검증한 결과, 우의($t=1.987$, $p=.094$), 대립($t=.795$, $p=.457$), 사회적지지($t=1.867$, $p=.111$), 친밀($t=1.441$, $p=.200$), 처벌주도권($t=1.000$, $p=.356$)으로 사전 통제집단과 사후 통제집단의 또래관계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대응표본(검사6)] 통제집단 사회성 사전사후 평균차이 검증

변수	검사유형	N	평균	표준편차	t	p
사회성 총점	사전	7	1.461	.093	4.584	.004
	사후	7	1.423	.081		
준법성	사전	7	1.321	.189	1.549	.172
	사후	7	1.250	.204		
사교성	사전	7	1.571	.146	1.000	.356
	사후	7	1.546	.148		
협동성	사전	7	1.476	.153	1.549	.172
	사후	7	1.444	.128		
자주성	사전	7	1.476	.149	.420	.689
	사후	7	1.452	.209		

$p < .05$ $P < .01$ $P < .001$

<표 17>은 통제집단에서 사회성 4개 변수에 대한 사전사후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검증한 결과, 준법성($t=1.549$, $p=.172$), 사교성($t=1.000$, $p=.356$), 협동성($t=1.549$, $p=.172$), 자주성($t=.420$, $p=.689$)으로 사전 통제집단과 사후 통제집단의 사회성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대응표본(검사7)] 실험집단 또래관계 사전사후 평균차이 검증

변수	검사유형	N	평균	표준편차	t	ρ
또래관계 총점	사전	7	2.342	.271	-18.952	.000
	사후	7	3.538	.144		
우의	사전	7	2.762	.535	-6.763	.001
	사후	7	3.952	.300		
대립	사전	7	2.143	.262	-4.690	.003
	사후	7	3.190	.504		
사회적지지	사전	7	2.177	.438	-19.058	.000
	사후	7	3.487	.457		
친밀	사전	7	2.457	.971	-4.768	.003
	사후	7	3.486	.641		
처벌주도권	사전	7	2.171	.315	-7.000	.000
	사후	7	3.571	.335		

$\rho < .05$ $P < .01$ $P < .001$

<표 18>은 실험집단에서 또래관계 5개 변수에 대한 사전사후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검증한 결과, 우의($t=-6.763$, $\rho=.001$), 대립($t=-4.690$, $\rho=.003$), 친밀($t=-4.768$, $\rho=.003$)은 $\rho<.0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사회적지지($t=1.441$, $\rho=.200$), 처벌주도권은($t=1.000$, $\rho=.356$) $\rho<.00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다.

<표 19> [대응표본(검사8)] 실험집단 사회성 사전사후 평균차이 검증

변수	검사유형	N	평균	표준편차	t	p
사회성 총점	사전	7	1.497	.160	-21.879	.000
	사후	7	2.402	.252		
준법성	사전	7	1.643	.318	-7.071	.000
	사후	7	2.357	.378		
사교성	사전	7	1.455	.148	-16.593	.000
	사후	7	2.481	.250		
협동성	사전	7	1.318	.175	-11.023	.000
	사후	7	2.318	.268		
자주성	사전	7	1.500	.252	-12.568	.000
	사후	7	2.310	.267		

$$p < .05 \quad P < .01 \quad P < .001$$

<표 19>는 통제집단에서 사회성 4개 변수에 대한 사전사후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검증한 결과, 준법성($t=-6.763$, $p=.000$), 사교성($t=-4.690$, $p=.000$), 협동성($t=-4.768$, $p=.000$), 자주성($t=1.441$, $p=.000$)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여 집단(실험집단, 대기집단)과 검사시기(사전검사, 사후검사)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20>과 같다.

<표20> 또래관계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SS	df	MS	F	P
총점	집단 간	10.061	1	10.061	232.19	.000
	집단 내	.520	12			
	전체	10.581	13			
우의	집단 간	8.643	1	8.643	52.69	.000
	집단 내	1.968	12	.164		
	전체	10.611	13			
대립	집단 간	7.143	1	7.143	19.71	.001
	집단 내	4.349	12	.362		
	전체	11.492	13			
사회적지지	집단 간	11.962	1	11.962	81.62	.000
	집단 내	1.759	12	.147		
	전체	13.721	13			
친밀	집단 간	15.226	1	15.226	60.33	.000
	집단 내	3.029	12	.252		
	전체	18.254	13			
처벌주도권	집단 간	8.331	1	8.331	62.94	.000
	집단 내	1.589	12	.132		
	전체	9.920	13			

$p < .05$ $P < .01$ $P < .001$

변량분석의 결과, 우의($F=52.69$, $p=.000$), 대립($F=19.71$, $p=.001$), 사회적지지($F=81.62$, $p=.001$), 친밀($F=60.33$, $p=.000$), 처벌주도권($F=62.94$, $p=.000$)은 모두 집단 내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연구에서 실시한 점토를 활

용한 집단미술치료가 보육시설 아동의 또래관계 변수인 우의, 대립, 사회적지지, 친밀, 처벌주도권을 개선하는 데에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표21> 사회성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SS	df	MS	F	<i>P</i>
총점	집단 간	3.353	1	3.353	95.92	.000
	집단 내	.420	12	.035		
	전체	3.773	13			
준법성	집단 간	4.290	1	4.290	46.50	.000
	집단 내	1.107	12	.092		
	전체	5.397	13			
사교성	집단 간	3.060	1	3.060	72.34	.000
	집단 내	.508	12	.042		
	전체	3.568	13			
협동성	집단 간	2.668	1	2.668	60.50	.000
	집단 내	.529	12	.044		
	전체	3.197	13			
자주성	집단 간	3.500	1	3.500	60.83	.000
	집단 내	.690	12	.058		
	전체	4.190	13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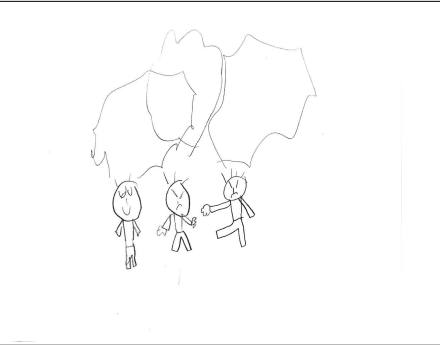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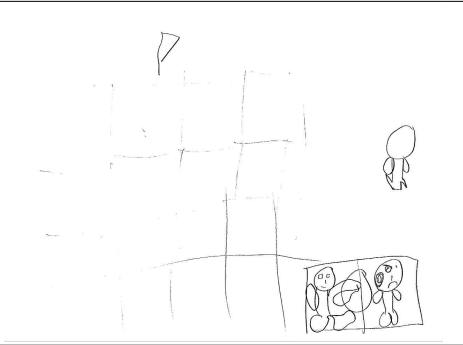
ss제곱합, df자유도, ms평균제곱

변량분석의 결과, 준법성($F=46.50$, $p=.000$), 사교성($F=72.34$, $p=.000$), 협동성($F=60.50$, $p=.000$), 자주성($F=60.83$, $p=.000$)은 모두 집단 내 상호작용 효과가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연구에서 실시한 점토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보육시설 아동의 사회성 변수인 준법성, 사교성, 협동성, 자주성을 개선하는 데에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D.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동적 학교생활화 그림검사 (KSD)에 미치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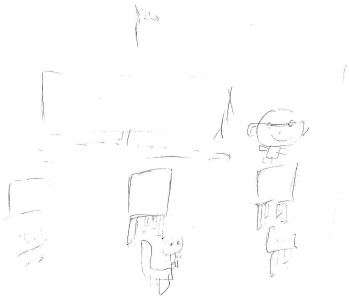
<그림 1> A의 KSD 사전.사후 그림변화

	사전	사후
A그림		
내용분석	학교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라고 하였으며 친구 선생님은 싸우지 말라고 말리며 지켜보고 있고, 제일 오른쪽인 자신이며, 자신과 의견이 안 맞는 친구 때문에 싸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함.	아동은 체육시간을 그렸다고 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피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고 말함. 그러나 자신이 무엇 때문인지 공 던지는 친구한테 화가 나 있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하였으며 선생님은 심판을 보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함.
연구자 소견	아동은 평소 고집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또래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보이나 성급하며, 잘 어울리지 못하며 사전 사후 그림 모두 화가 나 있는 자신을 표현한 모습으로 보아 또래와 어울리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점으로 보아 사전에 비해 사후의 또래관계 및 사회성에 긍정적 변화가 보이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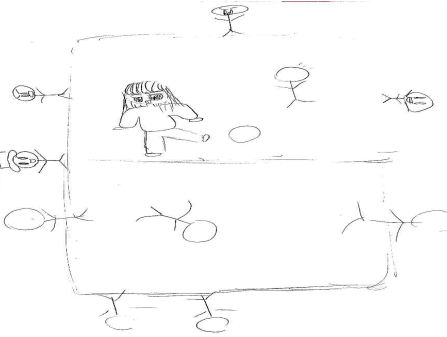
<그림 2> B의 KSD 사전·사후 그림변화 분석

	사전	사후
B그림		
내용분석	<p>아동은 학교에서 9시 첫 수업이 체육이라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말했으며, 자신과 친한 친구 둘과 담임 쌤을 그림. 담임쌤을 가장 크게 그렸으며 여자아이들은 교실 안에서 놀고 있어서 제외시켰다고 함.</p>	<p>방과 후에 자신과 친구들이 축구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으며 담임 쌤과 여자인 친구들은 제외시킴. 축구장 안에 자신을 포함하여 두 친구를 테두리에 둘러쌀인 형식으로 그림을 표현한 두드러진 특징이 보임. 또 한 아동은 사후에 사람의 머리카락에 음영을 넣음.</p>
연구자 소견	<p>사전 그림과 비교했을 때 사후에 사람의 크기를 작게 표현하였으며 사전 사후 모두 여자아이들은 제외시킴으로 평소 여자아이들과의 적절한 상호작용 및 친밀감이 낮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아동은 사전과 사후 모두 자신과 친구를 축구장 테두리에 둘러쌀인 형식으로 그림을 그림으로 방어기제로써 자신을 고립시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함. 또 사전과 달리 사후에 아동은 사람에 머리카락에 음영을 넣음으로 공상이 많으며 관계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기도 함.</p>	



<그림 3> C의 KSD 사전.사후 그림변화 분석

	사전	사후
C그림		
내용분석	<p>아동은 교실 안을 그렸으며 배경은 거의 그리지 않고 원 테두리 안에 자신과 친구를 그렸으며 함께 친구와 놀고 있으며 그것을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말함. 선생님은 자신과 친구에 비해 눈을 점찍은 모양으로 표현함.</p>	<p>교실 쉬는 시간을 표현하였으며 가운데는 자신이라고 설명하였고 선생님은 자신을 지켜보고 있으며 친구들은 놀러나간 것 같다고 말함. 책상과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은 본인만 그리고 친구들은 제외시켰으며, 사전에 비해 그림 배경은 많이 그렸으나 필압이 연해짐.</p>
연구자 소견	<p>아동의 사전그림은 평소 또래관계에서 욕설사용이나 부정적인 행동으로 인해 친구들에게 불편함을 주는데 이 그림역시 친구와 놀고있다고 표현했지만 놀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짐으로 아동의 평소 또래관계 속에서의 특징이 나타났으며 사후에서는 오히려 친구들을 제외시키기도 함으로 또래관계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 사전사후에 큰 긍정적 변화가 보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음.</p>	



<그림 4> 0의 KSD 사전.사후 그림변화 분석

	사전	사후
<p>0그림</p>		
<p>내용분석</p>	<p>아동은 그림을 본인과 선생님만 공들여 그렸음. 수업 중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웃는포즈 시범을 보여주라고 시킨 적이 있는데 그때가 기억이 나서 그 장면을 그렸다고 하였으며, 친구들이 자신을 따라 하여 좋았고 앞에 나와서 떨리기도 했다고 말함.</p>	<p>아동은 사각의 운동장 틀 안에 본인을 그렸으며 대부분의 친구들은 선 밖에 그림. 체육시간에 반 친구들과 함께 피구하는 모습이라고 하였으며 선생님은 교실에 있기 때문에 그리지 않았다고 말함. 본인만 자세히 표현하였으며 친구들은 줄라맨 형식의 그림으로 표현함.</p>
<p>연구자 소견</p>	<p>사전 사후 그림들을 보면 모두 함께 참여하는 단체수업이나 역동적인 그림을 그림으로 또래관계의 욕구는 보이나 사후 그림에서처럼 친구들과 자신과 분리하고 경계를 하는 모습이 보임. 사전의 그림에서는 선생님을 그렸으나 사후에 선생님을 제외시킴으로 선생님에 대한 애착 및 의존성은 줄어든 것으로 보여짐.</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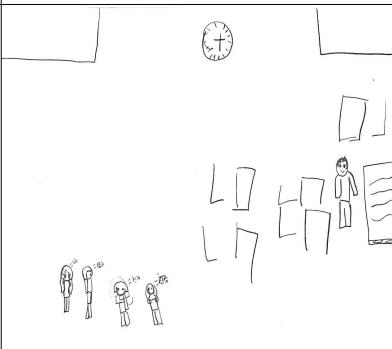

<그림 5> E의 KSD 사전.사후 그림변화 분석

	사전	사후
E그림		
내용분석	<p>아동은 그림을 그릴 때, 집중하지 못하고 30초 내고 그림을 그리는 등 그림에 거부반응이 보였으며 자신이 학교 급식을 먹고있는 모습을 그린것이라고 말함. 배고파서 먹고 싶은 음식들과 즐거워하는 자신을 표현한 것이라고 함.</p>	<p>마찬가지로 그림에 대한 거부반응이 여전히 보였으며 그림그리는 것을 귀찮아하고 대충 그리는 모습이 보임. 아동은 자신과 친구들이 학교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그린것이라고 하였음. 아동의 그림을 보면 사람의 얼굴 및 손의 형태 등 다 그려지지 않거나 제외시킨 것들이 많이 보임.</p>
연구자 소견	<p>아동은 전체적으로 그림검사 및 치료사의 지시에 대한 거부반응이 심하게 보이고 집중력이 부족한 모습이 보였으며 사회성이 낮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아동은 자신만을 그리거나 친구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거나 표현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보임. 사전 그림과 달리 사후그림에서는 친구가 추가되기는 하였음.</p>	

<그림 6> F의 KSD 사전.사후 그림변화 분석

	사전	사후
F그림		
내용분석	<p>아동은 자신은 역동적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으며, 친구들은 책상과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그림. 자신이 친구들에게 물건을 빌려주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함. 선생님은 그림에서 제외시킴.</p>	<p>사전과 마찬가지로 역동적이게 자신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으며, 친구들은 책상과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그림. 인물의 크기는 사전에 비해 조금 줄어들었으며 사전의 그림과 사후의 그림이 비슷하게 그려짐. 사전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을 그리지 않음.</p>
연구자 소견	<p>사전의 그림과 사후의 그림을 볼 때 두 그림 모두 역동적인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평소 활발한 성향의 아동이며 친구관계 형성의 욕구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음. 사전과 비교했을 때 사후의 그림에서 또래관계나 사회성에 관련된 큰 긍정적 변화가 보이지 않음.</p>	



<그림 7> G의 KSD 사전.사후 그림변화 분석

	사전	사후
G그림		
내용분석	<p>아동은 자신을 포함하여 친구들과의 크기를 작게 그렸으며, 선생님은 좀 더 크게 표현함. 아동은 선생님이 수업 중 과 학시간에 4명끼리 모듬을 만드라고 해서 친구들과 함께 자리를 옮기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함. 전체적으로 인물의 그림을 볼 때 목, 손가락, 발을 그리지 않음.</p>	<p>아동은 사전에 비해 인물의 크기와 전체적 그림의 크기가 커졌으나 자신만 자세히 표현하고 나머지 친구나 선생님은 공들여 그리지 않는 모습이 보임. 아동은 친구들과 쉬는 시간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함. 사전과 달리 자신을 표현하는데 있어 목을 그리긴 하였지만 여전히 손과 발은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인물은 목도 그리지 않았음.</p>
연구자 소견	<p>사전에는 전체적으로 그림의 크기가 작았으나, 사후의 그림에서는 인물을 포함하여 전체 그림의 크기가 커짐. 사전에서는 작게 친구들도 상세히 표현하기도 하였으나 사후에서는 친구들을 대충 그리는 모습이 보임으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부분도 아직 있다는 점이 보였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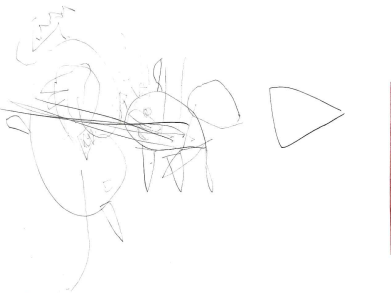

<그림 8> H의 KSD 사전.사후 그림변화 분석

	사전	사후
H그림		
내용분석	<p>아동은 인물을 작고 명암을 전체 친한 형태로 표현하였으며 과학시간에 과학실에서 선생님과 수업을 하고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말함. 친구들도 함께 있지만 그리기가 힘들어 제외시켰으며 자신과 선생님의 모습을 명암으로 질게 칠함.</p>	<p>그림이 사전에 비해 더 섬세해지고 커졌으며 구체화 됨. 아동은 코로나때 자신과 세영이라는 친구 둘만 왔을 때가 떠올라서 상황을 그린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상세히 글로 적기도 함. 선생님은 뒷모습으로 표현하였으며, 친구와 선생님과 본인 셋이서 즐겁게 수업을 하고있는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냄.</p>
연구자 소견	<p>아동은 사전 그림에서 인물을 자신과 선생님만 표현하였으며 인물은 명암을 매우 어둡게 칠하였고, 친구는 제외시켜 그림으로 친구에 대한 거부감 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사후에서는 친구와 함께 수업을 받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 사후 그림에서 또래관계에 긍정적 변화가 보임을 알 수 있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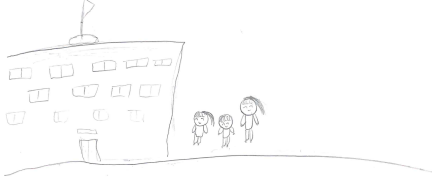
<그림 9> 1의 KSD 사전.사후 그림변화 분석

	사전	사후
1그림		
내용분석	<p>아동은 치료사의 지시문에 잘 따르지 않고 즐라맨 형식의 인물과 그림을 그렸으며 그림에 자신없어하는 모습과 함께 그림검사에 거부반응이 보였음. 그림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게 그려졌으며 인물은 놀이터에서 놀고있는 자신과 친구 선생님을 그렸음.</p>	<p>사전에 비해서 그림검사에 대한 거부반응이 보이지 않고 지시문에 잘 따랐으며 사전의 그림보다 전체적으로 그림이 커졌으며 미끄럼틀에서 친구와 함께 놀고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말함. 또 아동은 이때 감정은 즐거운 상태라고 말함으로 친구와 함께 어울리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표현함.</p>
연구자 소견	<p>사전그림에서 아동은 그림이 매우 작고 우선 치료사의 지시나 그림검사를 거부하는 반응을 볼 때 사회성이나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모습이 보였으나 사후그림을 그릴 때는 거부감 없이 지시에 잘 따르는 모습이 보였으며 그림에서는 사전의 그림보다 사후 그림에서 전체적으로 그림이 커짐으로 활동성 및 매사의 의욕과 자신감등이 향상됨을 알 수 있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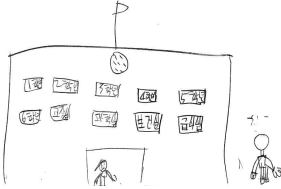

<그림 10> J의 KSD 사전.사후 그림변화 분석

	사전	사후
J그림		
내용분석	<p>사전 그림에서 아동은 그림을 그리기 매우 싫어하고 치료사의 지시문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으며 친구들의 그림에 낙서를 하려고 하는 등의 태도가 보였음. 그림은 선생님과 자신을 그렸으며 친구들은 자신을 놀려서 그리지 않았다고 말함.</p>	<p>아동은 노래를 부르며 그림을 그렸으며 종이를 돌려가면서 그림을 그림. 자신이 좋아하는 선생님을 그렸다고 하였으며, 친구들도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 두 명을 그렸다고 말함. 낙서된 듯하게 그림이 그려졌으며 사전에 비해서는 많이 호전된 그림처럼 보여짐.</p>
연구자 소견	<p>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사전 그림을 그릴 때 집중하지 못하는 태도와 함께 친구들에게 불편한 행동을 하였으나 사후에서는 좀 더 자신의 그림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였으며 사전 그림에서는 친구들을 제외시켰으나 사후의 그림에서는 친한 친구들을 표현함으로 긍정적인 또래관계의 변화를 볼 수 있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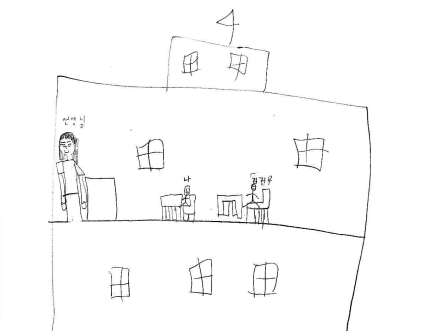
<그림 11> K의 KSD 사전.사후 그림변화 분석

	사전	사후
K그림		
내용분석	<p>아동은 사전 그림에서 학교와 자신만을 그렸으며 친구들과 선생님은 그리지 않음. 학교에 등교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라고 말하였으며 특히 남성적인 복근 몸매를 과장시킨 것이 특징적이었으며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보였음.</p>	<p>아동은 사전과 달리 멀리서 보이는 시점으로 그림을 표현하였으며 자신을 포함하여 여자친구 두 명과 함께 등교하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림. 아동은 학교 가기 싫지만, 여자친구들이 끌고가고 있다고 장난스럽게 이야기하듯 말하였음.</p>
연구자 소견	<p>아동은 사전에 그림을 볼 때 자신만을 그렸으며 친구들을 제외시킴으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었으나 사후그림에 친구들을 그림으로 함께 상호작용하는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임. 또 사전에는 힘을 과시하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보였으나 사후에는 그러한 모습이 그림에서 보이지 않음.</p>	



<그림 12> L의 KSD 사전·사후 그림변화 분석

	사전	사후
그림		
내용분석	<p>그림을 그릴 때 한참을 고민하면서 그림을 그렸으며 자신과 선생님만 그리고 친구들은 제외시킴. 아동은 학교 내부를 상세히 적어가며 그림을 그렸으며 친구들 다 그리기에는 너무 많아서 그리지 않았다고 말하였음.</p>	<p>사전과 달리 사후그림에서는 실내를 일일이 설명하는 글을 적지 않았으며 창문만 그림. 친구들과 선생님 자신 모두를 그림으로 그렸으며 그네와 유치원 등 좀 더 많은 부설물도 그림에 표현함. 아동은 수업중인 상황을 그린 것이라고 하였으며 친구들과 선생님 다 기분 좋아보이는 것 같다고 말함.</p>
연구자 소견	<p>사전에서는 그림 그리는 것에 대한 긴장감 및 자신감이 없어보였으나 사후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음. 사전 그림에서는 친구들은 제외했으나, 사후의 그림에서는 친구들을 추가로 많이 그림으로 도래 관계에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점을 파악함.</p>	

<그림 13> M의 KSD 사전.사후 그림변화 분석

	사전	사후
M그림		
내용분석	<p>전체적으로 그림이 멀리서 보이는 시점으로 그려졌으며 건물을 하나 하나 구분하고 분리하여 그림. 아동은 자신의 교실이 6학년 교실이라고 말함. 아동이 말한 6학년 교실은 다른 교실들에 비해 작은 크기로 그려짐.</p>	<p>사전보다 전체적으로 학교 건물과 그림 모두를 크게 그림. 아동은 선생님과 자신 친구 모두 수업하고 있는 모습을 그렸으며 선생님을 제일 크게 그림. 뒤에 있는 친구는 가장 친한 친구라고 말하였으며 선생님은 예쁘고 똑똑한 선생님이라고 말함.</p>
연구자 소견	<p>사전 그림에서 아동은 매우 멀리서 바라보는 시점으로 적극성이 떨어지고 비참여적인 성향이었으나 사후에 가깝게 바라보는 시점으로 그림을 그림으로 점도 적극적이고 참여적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음. 또 아동의 그림 전체가 커지고 친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때 자신감이 향상과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시사함.</p>	

<그림 14> N의 KSD 사전.사후 그림변화 분석

	사전	사후
N그림		
내용분석	<p>아동은 자신의 모습과 선생님 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으며 친구들은 그리지 않았은 따로 분리하여 그린 듯하게 표현되었으며 그림이 어울어지지 않는 느낌임. 아동은 국어수업중을 그린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자신이 국어시간을 제일 좋아한다고 함.</p>	<p>아동은 사전그림과는 달리 사후 그림은 인물을 자세히 그리기보다는 내용을 더 표현하고 싶어했으며, 수업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놀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 상황을 표현했다고 말함. 사전에는 친구들을 그리지 않았으나 사후그림에는 친구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모습들을 표현함.</p>
연구자 소견	<p>아동은 사전그림에서 따로 분리해놓은 듯한 그림을 그림으로 평소 학교에서 또래관계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볼 수 있었으나, 이후 사후그림에서 아동은 친구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함으로 또래관계에 긍정적 변화가 보임을 시사함.</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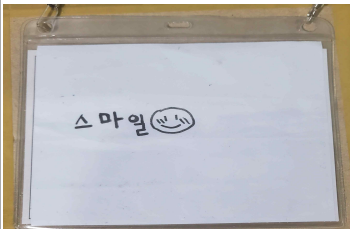
E.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참여자 변화 내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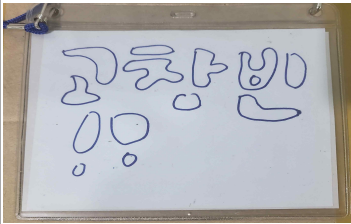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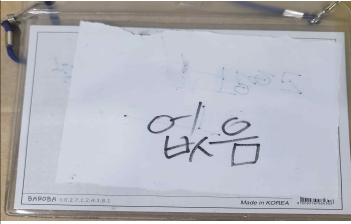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보완적 분석 자료로 매회기마다 집단원들의 행동 및 작품 표현의 변화 양상을 초기단계, 실행단계, 종결단계로 나누어 요약기술하고 이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1. 프로그램 단계별 내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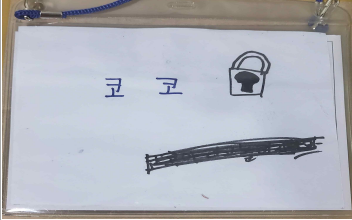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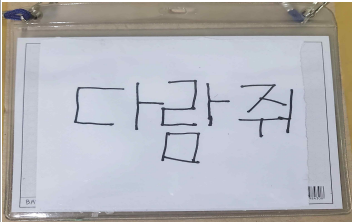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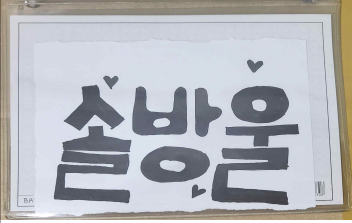
a. 초기단계 (1~3회기)

(1) 1회기

구분	내용	
프로그램명	명찰 만들기	
준비물	도화지, 명찰	
기대효과	친밀감 형성, 흥미유발	
활동	자신의 별명을 쓴 명찰을 목에 걸고 자기소개	
진행과정 및 작품		<p>H임솔미) 행동: ‘스마일’이라고 적었지만 중간에 친구들을 따라서 바꾸려고 하다가 바꾸지 않음으로 자기주장 및 의지가 부족해보임.</p> <p>작품: 자신이 웃을 때가 많아서 ‘스마일’로 별명을 지었음.</p>


		<p>K고창빈) 행동: 마음에 드는 별명이 없다고 하며, 명찰을 던지는 행동을 함.</p> <p>작품: 별명이 따로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별명을 지음.</p>
		<p>I고형빈) 행동: 무기력하고 상담사와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였고, 물음에 대답대신 고개를 저으며 의사소통을 함.</p> <p>작품: 별명이 따로 없을뿐더러 자신의 이름으로도 별명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없음'으로 지었음.</p>
		<p>J김민채) 행동: 참여하지 못함.</p> <p>작품: 없음</p>

<p>진행과정 및</p>		<p>L김도현) 행동: 어머니에 대한 애정심이 강</p>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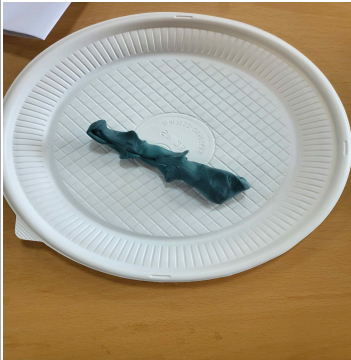
		<p>함. 별명을 지을 때 다른 친구들과 달리 신중하게 생각함.</p> <p>작품: 태어나기 전 엄마가 코코아를 먹고 싶다고 해서 ‘코코’라고 별명을 지음.</p>
<p>작품</p>		<p>M백현주) 행동: 다른 친구들과 달리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선택함.</p> <p>자신의 별명에 대해 만족스러워함.</p> <p>작품: 머리 색이 다람쥐 색이며, 동물 중에 다람쥐를 좋아해서 자신의 별명을 ‘다람쥐’라고 지음.</p>
		<p>N임솔지) 행동: 가장 단순히 생각하며, 빠른 진행이 됨. 의미부여가 부족하고, 자신만의 개성이 보이는 글씨체를 사용함.</p> <p>작품: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신을 솔방울이라고 별명을 부르기 때문에 ‘솔방울’이라고 지음.</p>

(2) 2회기

구분	내용	
프로그램명	자기소개하기	
준비물	플라스틱 접시, 아이클레이	
기대효과	친밀감 형성, 흥미유발	
활동	자신의 별칭 만들기	
진행과정 및 작품		<p>H(임솔미) 행동: 당당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있음. 질문을 잘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대답을 잘함. 조용하고 집중도가 높음. 선생님이 하는 행동에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음. 같이 활동 중인 동생에게 애교부리지 말라고 함.</p> <p>작품: 스마일이라는 자신만의 캐릭터가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만듦.</p> <p>잘 웃어서 별명이 스마일이라고 하여 스마일캐릭터를 자신의 별칭으로 만듦</p>
		<p>K(고창빈) 행동: 형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잘함. 멍 때리는 행동을 자주보임.</p> <p>집중도가 높으며, 남의 관찰을 자주함. 말을 지속적으로 걸며, 궁금한 것은 즉흥적으로 물어보는 편임.</p> <p>작품: 자신을 닮아서 돼지라는 별칭을 함. 돼지를 만들 때 웃으면서 만듦.</p>

		<p>I고형빈) 행동: 낮을 가리면 조용하며 약간의 긴장감이 풀리면 산만해지고, 동생이랑 신체적으로 장난침. 전체적으로 의욕이 부족하고, 무기력하며, 빨리 집에 가고 싶어함.</p> <p>작품: 작품을 만들지 않으려 하고, 클레이 작업에 겁이 있으며, 자신에 대한 별칭에 관심이 없고,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함.</p> <p>클레이를 선생님한테 가져다 달라고 하며, 마지막에 열심히 만든 작품을 뭉개버림.</p>

진행과정 및
작품



J김민채) 행동: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함. 선생님께 의지하려는 경향이 많음.

친구의 작품을 망가뜨리려하거나 피해를 줌.

작품: 악어를 만들었으며, 작품을 만드는 도중 친구작품을 망가뜨리고, 본인 작품을 만들며 만드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자 클레이를 바닥에 던지는 행동을 함.




L김도현) 행동: 친구를 잘 도와주고 자기의 주장이 강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함. 집중도가 높음.

작품: 악어의 이빨이 멋있어서 악어를 자신의 별칭으로 만들어봄. 꼬리를 가장 길게 만들었으며, 도중 친구랑 다툼이 있었으나 친구를 위해서 많이 참는 것이 눈에 보임.



M백현주) 행동: 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고, 대체로 소심하며, 남의 의견에 수용적임.

작품: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며, 탕탱볼, 다람쥐, 쓰레기통을 만들었으며, 쓰레기통이 자신이라고 소개함.

		<p>N임솔지) 행동: 학년에 맞게 잘 행동하며, 친구나 동생을 도와줌. 말이 많고, 자기주장이 강하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표현함. 집중도가 높지만 남이 말을 걸거나 이야기를 나누면 집중도가 잠시 낮아지고, 시끄러워지면 큰소리로 조용히 하라고 화를 냄.</p> <p>작품: 이름에 솔이 들어가서 솔방울과 예뻐서 만든 장미 자신의 이름에 지가 들어가서 지우개를 만들었음. 지우개를 선택한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고 하면서 결론은 자신도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말함.</p>
--	---	--

(3) 3회기

구분	내용	
프로그램명	자유롭게 표현하기	
준비물	옹기토, 테라점토, 찰흙도구, A4용지	
기대효과	흥미유발, 긴장완화	
활동	만들고 싶은 작품을 점토로 만들기	
진행과정 및 작품		<p>H임솔미) 행동: 찰흙할 때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도자기 기법을 사용할 줄 알고, 또래 친구가 자신의 작품을 따라했다고 함.</p> <p>작품: 돌덩이가 손가락 위에 있는 것과 바구니를 만들어봄.</p>
		<p>K고창빈) 행동: 자기소개 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고, 쑥스러움이 많음.</p> <p>작품: 무조건 대답은 모르겠다고 말함. 친구들이 이름을 정해주려고 했지만, 끝까지 모르겠다고 함.</p>
		<p>I고형빈) 행동: 참여도가 매우 낮음.</p> <p>어떠한 작품에도 의욕이 없고, 안 하려고 함. 작품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상담사와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은 증가함.</p> <p>찰흙을 만지기 전 장갑을 달라고 하였음.</p>

		<p>작품: 모르겜다고 함. 무엇을 만들지 않고 찰흙을 하는 동안 만지기만 하고 만들지 않음.</p>
		<p>J김민채) 행동: 동생에게 양보를 잘하고, 치료사의 지시나 말에는 수용적이며 말은 많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는 편임. 동생에게 빌린 찰흙을 받고 고맙다고 말함.</p> <p>작품: 공룡을 만들다가 실패해서 그릇을 만듦. 공룡을 신중하게 했지만, 친구들이 발표한다고 한 후 부수고, 다시 시작함.</p>
		<p>L김도현) 행동: 집중도 높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작품은 잘 만드는 편이었음. 또래들보다 말이 적고, 질문도 적은 편임.</p> <p>작품: 뱀과 백두산을 만들어냄.</p> <p>백두산을 설명할 때 세밀하게 하나하나 말해줌. 자신이 백두산을 만들 때 어떤 도구를 썼으며, 어떻게 찍었는지 찢는지를 알려줌.</p>

진행 과정 및 작품		<p>M백현주) 행동: 자기주장이 강해지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함. 집중도가 높음</p> <p>작품: 자신이 스스로 말로 설명을 해 줌.</p> <p>연필과 연필꽃이, 쿠키를 만들었음.</p> <p>친구들의 잘 만들었다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다고 말함.</p>
		<p>N임솔지) 행동: 동생들에게 신경 꺼달라고 말하며, 까칠하고 통명스럽게 성질을 냄. 사춘기가 시작으로 예민한 부분이 보임.</p> <p>작품: 하트 접시 이유는 없고 만들고 싶어서 만듦. 잘 만들었다는 친구들의 말에 감동이라며 사랑한다며 연기하는 톤으로 말을 함.</p>

b. 중기단계 (4~10회기)

(4) 4회기

구분	내용
프로그램명	나와 닮은 동물은?
준비물	지점토, 색 접시
기대효과	내면 탐색, 자기표현

활동	나를 나타내는 동물을 표현하고 소개하기	
진행과정 및 작품		<p>H임솔미) 행동: 자신이 해야할 일을 끝내려고 노력하고, 동생에게 자기주장을 하라고 말해줌. 자신의 작품에 대해 상담사와 대화를 많이 함. 자신의 주장을 잘 내세우며, 자신이 만든 작품에 각각 의미가 들어있음.</p> <p>작품: 자신이 키가 작아서 토끼를 선택하였고, 토끼는 당근을 좋아해서 당근을 만들었다고 함. 토끼에게 의지와 테이블을 만들어주었는데 토끼가 불편할까 봐 만들어주었다고 함.</p>
		<p>K고창빈) 행동: 지점토를 온 힘을 다해 세계 내리침. 내리칠 때 표정이 밝음. 상담사와 장난을 치고, 자신의 작품을 만드는데에 어려움 없이 만들고자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만듦.</p> <p>작품: 팔이 작은 올라프를 만들었다고 하였음. 발표할 때 당당하게 하다가 발표가 끝날 때 자신의 작품을 누르려고 하다 살짝 누르게 됨.</p>
		<p>I고형빈) 행동: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음.</p> <p>지점토의 느낌이 싫다고 하였고, 클레</p>

		<p>이가 더 좋다고 표현함.</p> <p>명찰을 차지 않으려고 하고, 상담사와 거짓말과 장난을 치기 시작함.</p> <p>작품: 만들지 않았음. 만들기 싫지는 않았지만 만들게 없었다고 말함.</p>
		<p>J(김민채) 행동: 첫 만남 때보다 상담사에게 많이 밝아졌고, 자주 언니에게 허락을 맡는 행동을 하는데 자신의 작품마저 언니에게 허락을 맡으며 만듦.</p> <p>작품: 고양이와 생선, 파를 표현하였고, 옆 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음. 작품 하면서 친구에게 의지하고 허락을 받는 모습을 보여줌.</p>
<p>진행과정 및 작품</p>		<p>L(김도현) 행동: 세계 내리치는 옆 친구에게 살살해달라고 말로 표현하였고, 내리치지 않고 손으로 지점토를 만지면서 작품을 만듦.</p> <p>작품: 드래곤을 만들었다고 함.</p> <p>드래곤은 100살이 되었는데 드래곤 세상에서는 100살이 1살이라고 한다고 함.</p> <p>자신의 주장을 상담사에게 손짓을 하며 표현함.</p>
		<p>M(백현주) 행동: 지점토를 세계 내리치</p>

		<p>거나 두드림. 옆 친구 점토를 망가뜨리려고 함. 숨겨왔던 행동들이 보이기 시작함.</p> <p>작품: 강아지와 탱탱볼을 만들었다고 함.</p> <p>강아지 귀나 다리, 팔을 선생님께 도움을 받았으며, 하나를 해주면 하나를 스스로 만들려고 노력함. 탱탱볼은 남은 지점토를 이용하여 만들었다고 함.</p>
		<p>N임솔지) 행동: 친구나 동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상담사에게 말함. 동생이나 친구들에게 시비걸지 말라고 성질을 내며 소리를 지름.</p> <p>작품: 곰돌이와 동굴을 만듦.</p> <p>곰돌이의 이름은 토비라고 하며, 동굴은 곰돌이 '토비'가 사는 곳이라고 말함.</p> <p>곰돌이는 자신을 뜻함.</p>

(5) 5회기

구분	내용
프로그램명	우리들의 동물 마을
준비물	우드란, 클레이, 물감, 글루건, 붓
기대효과	자기표현력 증진, 의사소통 증진, 협동



H(임솔미) 행동: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것을 적극적으로 만들었으며 언니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하려고 하며, 집중도가 높아짐.

함께 클레이를 공유하려는 모습 통해 협동하려는 긍정적인 행동이 보임.

I(고형빈) 행동: 명찰을 차지 않으려고 하였으며, 처음으로 자신이 만들고 싶은 의욕이 생김. 집을 만들고 싶어하지만, 자신이 만드는 것에 겁이 있어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보임.

선생님이 틀을 만들어주고 스스로 창문과 대문, 나무 등 자신의 작품을 만들기 시작함. 자신의 작품을 처음으로 제대로 표현을 함.

J김민채) 행동: 선생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며, 자기작업보다는 타인의 작품에 관심이 많았으며 친구 만지려고 하기도 하였으나 그 전에 먼저 친구에게 허락을 구함. 자신이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가 크며 어떤 것이든 먼저 손으로 만져보고 만드려고 함. 클레이의 적당량에 대한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클레이 양 조절을 하려고 노력함. 친구의 놀림이나 실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질을 내는 부분이 있었음.
K고창빈) 행동: 스스로 만들고 싶은 것이 없다고 말함. 말은 그렇게 하다가도 친구들이 만드는 것을 보면서 우물이나 과일 등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시작함. 자신의 작품을 만들 때 집중도가 높아졌음.
L김도현) 행동: 친구에게 괴롭히지 말라고 말로 함.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며, 한숨을 쉬며 참는 행동을 함. 자신이 하고 싶은 작품이 항상 많음. 선생님이나 상담사에게 항상 자신의 작품을 자랑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많은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관심욕구가 보임.
M백현주) 행동: 자기 의견 및 주장이 많아지고 강해짐. 다른 친구나 또래들에 비해 작품 만드는 속도가 느리며, 놀리지 말라고 동생에게 화를 냄. 동생이나 친구들이 놀리는 말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화를 내서 당황스러워함.
N임솔지) 행동: 클레이를 적절하게 잘 섞기도 하고 친구들의 작품에 어울리는 꾸밀만한 것들을 추가로 만들었음. 아동은 작업을 하면서 스스로 잘 만들지 못하는 친구들을 도와주기도 하였으며, 간식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자신의 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려는 긍정적인 모습이 보임.

(6) 6회기

구분	내용
프로그램명	화난 모습과 화의 해결사

준비물	칼라점토, 엽서, 흰 접시	
기대효과	부정적 감정 표출, 자기 및 타인인식	
활동	화난 감정을 점토로 표현, 풀어내는 방법 찾기	
진행과정 및 작품		<p>H(임솔미) 행동: 세심하며 조용하게 활동을 함. 상담사와 선생님에게 의사소통이 늘어남. 집중도가 좋아졌으며, 동생에게 똑같은 그림을 그리지 말라고 명령함. 마지막에 동생이 자신의 작품을 따라서 했다고 옴.</p> <p>작품: ‘스마일’이라는 자신을 상징하는 캐릭터가 화가 났을 때 짓는 모습이라고 함. 누군가 자신을 따라할 때 화가 난다고 함.</p>
		<p>K(고창빈) 행동: 선생님의 도움을 필요하고 일부러 도움을 요청함. 상담사와 선생님에게 의사소통이 늘어났고, 집중도가 많이 높아짐. 엽서를 쓰고 보여주지 않고 숨기려고 하면서 다시 하고 싶다고 새것으로 달라고 함.</p> <p>작품: 친구의 작품과 유사하게 표현했으며, 모방하여 작품을 표현함을 알 수 있음.</p>
		<p>I(고형빈) 행동: 스스로 작품을 만들</p>

		<p>었으며 자신이 화난 모습을 표현하였다고 말하였고, 치료사에게 자신이 만든 작품에 자신감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설명하려는 긍정적인 모습이 보였음.</p> <p>작품: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여 작긴 하였지만, 색깔을 스스로 섞고 잘 표현하려고 했으며 집중하여 자신의 화난 얼굴을 표현함.</p>
		<p>J김민채) 행동: 자신의 얼굴을 만들었으며 주먹으로 내리치고 주물럭거리며 촉감을 최대한 느끼려는 행동을 함. 또 한 의존적으로 치료사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이 줄고 스스로 작품을 만들려고 함.</p> <p>작품: 뭉개진 듯한 얼굴이긴 했으나 평소 아동이 표현한 작품과 비교해서는 더 완성도 있는 작품을 스스로 만들어냄. 의존적으로 치료사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이 줄고 스스로 하려고 함.</p>

<p>진행과정 및 작품</p>		<p>L김도현) 행동: 평소 작업할 때보다 좀더 신중하게 표현하려는 모습이 보였으며, 다른 친구들의 작업속도</p>
----------------------	--	--

		<p>에 비해 비교적 빨리 완성함.</p> <p>작품: 화났을 때 조커처럼 변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였으며, 입을 특히 강조하였음.</p>
		<p>M백현주) 행동: 자신이 점토가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N아동에게 노란색과 빨간색 점토를 빌려달라고 함.</p> <p>작품: 자기 작품에 집중하여 찰흙칼로 섬세하게 머리카락을 표현하기도 함. 특히 인상쓰고 화난 듯한 표정을 잘 표현하였음.</p>
		<p>N임솔지) 행동: 친구들에게 자신이 쓰다남은 점토를 주며 자신이 필요한 점토를 빌리기도 하는 것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p> <p>작품: 최대한 예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으며, 특히 머리카락을 검정과 비슷하게 표현하려고 점토를 여러번 섞고 시도하였음.</p>

(7) 7회기

구분	내용
프로그램명	우리들의 감정 파이

준비물	칼라점토, 종이접시, 매직
기대효과	자기감정 인식, 타인인식, 협동
활동	일주일간 느꼈던 다양한 감정들 표현하기, 함께 감정 만다라 주변 꾸며 완성하기(협동)

진행과정 및 작품



--	--	--



H(임솔미) 행동: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것을 적극적으로 만들었으며 언니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하려고 하며, 집중도가 높아짐.

함께 클레이를 공유하려는 모습 통해 협동하려는 긍정적인 행동이 보임.

I(고형빈) 행동: 명찰을 차지 않으려고 하였으며, 처음으로 자신이 만들고 싶은 의욕이 생김. 집을 만들고 싶어하지만, 자신이 만드는 것에 겁이 있어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보임.

선생님이 틀을 만들어주고 스스로 창문과 대문, 나무 등 자신의 작품을 만들기 시작함. 자신의 작품을 처음으로 제대로 표현을 함.

J(김민채) 행동: 선생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며, 자기작업보다는 타인의 작품에 관심이 많았으며 친구 만지려고 하기도 하였으나 그 전에 먼저 친구에게 허락을 구함. 자신이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가 크며 어떤 것이든 먼저 손으로 만져보고 만

드려고 함. 클레이의 적당량에 대한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클레이 양 조절을 하려고 노력함. 친구의 놀림이나 실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질을 내는 부분이 있었음.
K(고창빈) 행동: 스스로 만들고 싶은 것이 없다고 말함. 말은 그렇게 하다가도 친구들이 만드는 것을 보면서 우물이나 과일 등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시작함. 자신의 작품을 만들 때 집중도가 높아졌음.
L(김도현) 행동: 친구에게 괴롭히지 말라고 말로 함.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며, 한숨을 쉬며 참는 행동을 함. 자신이 하고 싶은 작품이 항상 많음. 선생님이나 상담사에게 항상 자신의 작품을 자랑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많은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관심욕구가 보임.
M(백현주) 행동: 자기 의견 및 주장이 많아지고 강해짐. 다른 친구나 또래들에 비해 작품 만드는 속도가 느리며, 놀리지 말라고 동생에게 화를 냄. 동생이나 친구들이 놀리는 말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화를 내서 당황스러워함.
N(임솔지) 행동: 클레이를 적절하게 잘 섞기도 하고 친구들의 작품에 어울리는 꾸밀만한 것들을 추가로 만들었음. 아동은 작업을 하면서 스스로 잘 만들지 못하는 친구들을 도와주기도 하였으며, 간식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자신의 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려는 긍정적인 모습이 보임.

(8) 8회기

구분	내용
프로그램명	고민 친구
준비물	지점토, 수채화 물감, 붓
기대효과	나의 지지자원 찾기
활동	자신의 고민 또는 비밀 이야기를 들어 줄 수 있는 친구 만들기

진행과정 및 작품		<p>H(임솔미) 행동: 세심하며 조용하게 활동을 하였고, 상담사와 선생님에게 의사소통이 늘어남. 작품 만드는 도중 친구에게 똑같은 그림을 그리지 말라고 명령하였으며, 자신의 작품을 따라서 했다고 울었음.</p> <p>작품: 귀엽게 생긴 돼지 친구를 만들었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도 다른 친구들한테 비밀을 잘 지킬 것 같은 동물이 돼지여서 돼지로 표현했다고 함.</p>
		<p>K(고창빈) 행동: 지난 회기에 이어서 상담사와 선생님에게 장난스러운 말을 계속 시도함. 자신의 비밀을 들려주는 친구를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신중한 모습이 보임.</p> <p>작품: 작품을 다 완성하지 못하였으며 물감을 표현하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을 많이 보임. 자기와 가장 친한 친구를 표현함.</p>
		<p>I(고형빈) 행동: 지점토의 느낌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으나 나중에 물과 함께 계속 사용하니 부드러워서</p>

		<p>조금 재밌는 것 같다고 감정을 표현함.</p> <p>작품: 작품 만드는 속도가 빨랐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외계인 친구와 자신이 앉을 소파를 만들었다고 함.</p>
		<p>J(김민채) 행동: 지점토와 물을 계속 사용하였으며 처음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자 스스로 하겠다고 치료사에게 표현함.</p> <p>작품: 지난 회기 작품보다 크기가 크고 뭉게진 듯한 얼굴이긴 했으나 인물을 표현함을 알아볼 정도의 작품임. 물감을 다양한 색을 섞어 사용하였으며, 옷에 묻어도 울거나 보채지 않고 웃으면서 끝까지 자신의 작품을 스스로 완성하려고 함.</p>
<p>진행과정 및 작품</p>		<p>L(김도현) 행동: 악어를 만들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점토를 두 개로 잘라서 사용함. 아동은 흥얼거리면서 작업에 계속 집중하였음.</p> <p>작품: 이 악어는 숲속에 사는 악어라서 진한 청록으로 표현했으며, 이 악</p>


		<p>어도 외로워서 자신과 친구여서 기뻐할 것 같다고 말함.</p>
		<p>M백현주) 행동: 지점토를 만지고 표현하려고 하기보다는 친구들이 만드는 것을 멍하니 지켜보는 시간이 길었으며, 찰흙 도구를 이용하여 바로 표정을 만들어 냄.</p> <p>작품: 빠르게 완성하였으며, 지점토를 만지는 작업보다는 물감 작업에 더 흥미를 느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는 말없이 끄덕거리는 좋은 친구를 만들었다고 말함.</p>
		<p>N임솔지) 행동: 점토를 소분하여 사용하였고, 친구들에게 남은 점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행동을 함.</p> <p>작품: 평소보다는 간단하게 표현하였으며 해맑게 웃고있는 친구 모습을 표현했다고 말함.</p>



(9) 9회기

구분	내용
프로그램명	소중한 그릇
준비물	지점토, 수채화 물감, 붓

기대효과	나의 긍정적 자원 찾기, 자신감 부여	
활동	옹기토 점토를 활용한 자기표현, 그릇에 담은 내 소중한 물건 이야기 나누기	
진행과정 및 작품		<p>H(임솔미) 행동: 작품을 만들 때 신중하게 그릇을 만드려고 하였으며,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되는지 적극적으로 물어보기도 함.</p> <p>작품: 항아리 모양을 표현하였으며 그 안에 유리구슬을 보관할 것이라고 이야기함. 친구들한테 소개할 때도 처음엔 부끄러워하였으나, 곧잘 설명함.</p>
		<p>K(고창빈) 행동: 아동은 점토를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만지는 등 행동을 하였으며, 작품에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에게 “도와줄까?” 하고 물어보는 등 긍정적인 행동이 보임.</p> <p>작품: 하트를 여러 개 만들었으며 그것을 보관하는 그릇도 하트로 표현함.</p>
		<p>I(고형빈) 행동: 옆에 친구가 그릇을 만들자 본인 그릇도 처음에 만들다가 뭉게다가를 반복하다가도 결국엔 완성작을 만들어냄.</p> <p>작품: 작품 만드는데 자기작업에 처</p>

		<p>음으로 신중한 태도로 참여했으며, 그릇에는 소중한 하트를 담았음. 작품 설명에는 참여하지 않음.</p>
		<p>J김민채) 행동: 작품 안에 쿠키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넣고 싶다고 하였으며 처음에 납작하게 입체감 없이 표현하였음. 옆에 친구가 입체감 있게 도와줌.</p> <p>작품: 입체를 표현하는 작품에 어려움을 느끼자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친구는 아동에게 설명해 주기도 함. 안에 쿠키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표정 쿠키라고 함.</p>




<p>진행과정 및 작품</p>		<p>L김도현) 행동: 점토를 매끄럽게 만들기 보다는 다소 거칠게 표현하고 작업하였으며, 친구들의 작품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모방하였음.</p> <p>작품: 점토가 빨리 굳자 자기 작품이 망가질까 불안해함. 작품 설명할 때 안에는 먼지 모르지만 소중한 것을 넣었다고 말했으며, 타임캡슐 같</p>
------------------	---	--

		은 것이라고 말함.
		M백현주) 행동: 입체감 있게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지 치료사에게 도움을 요청함. 작품: 입체감 표현을 위해 보조 치료사 선생님이 아동에게 시범을 보여주자 곧잘 따라하는 편이었으며, 자신의 작품에 만족스럽다고 표현함.
		N임솔지) 행동: 아동은 점토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용기토 안에 들어가 있는 돌을 일일이 걷어내는 행동을 함. 작품: 뚜껑이 있는 항아리를 표현하였으며 자신이 아직 넣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소중한 물건을 간직할 때 넣을 항아리라고 말함.

(10) 10회기

구분	내용
프로그램명	나를 지켜주는 존재
준비물	아이폼, 가면
기대효과	자존감 및 자신감 향상
활동	자신에 대해 소중한 것과 나를 지켜주는 존재가 누구인지 떠올려


보고 가면 꾸미기		
진행과정 및 작품		<p>H(임솔미) 행동: 나를 지켜주는 존재가 누가 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때 아동은 언니가 떠올랐다고 표현하며 바로 시작하였음.</p> <p>작품: 언니가 웃고있는 모습을 표현하였으며, 평소 언니에게 많이 의지하며 함께 어울리고 제일 가까운 든든한 존재임을 표현함. 작품을 언니에게 보여주며 사랑하는 행동을 함.</p>
		<p>K(고창빈) 행동: 아동은 가면을 보고 무섭게 생겼다고 말하였으며, 든든한 존재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고 함.</p> <p>작품: 계속 고민하다가 어벤져스를 표현하였으며, 아빠 같은 든든한 사람일 것 같다고 말함. 다 만들고 마스크를 씌우면서 코로나기에 조심해야 되기때문에, 씌어줬다고 말함.</p>
		<p>I(고형빈) 행동: 옆에 친구가 그릇을 만들자 본인 그릇도 저음에 만들다가 웅게다가를 반복하다가도 결국엔 완성작을 만들어냄.</p> <p>작품: 작품 만드는데 자기작업에 처</p>


		<p>음으로 신중한 태도로 참여했으며, 그릇에는 소중한 하트를 담았음. 작품 설명에는 참여하지 않음.</p>
		<p>J(김민채) 행동: 클레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었으나 친구가 주라고 할 때 쉽게 양보하는 행동을 함.</p> <p>작품: 최대한 많이 폼클레이를 사용하고 싶어하였으며, 재밌다고 말함. 가면 소개할 때 엄마를 표현했다고 하였으며, 아들에게 엄마의 그리움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p>
<p>진행과정 및 작품</p>		<p>L(김도현) 행동: 아들은 나를 지켜주는 존재는 스스로 지켜야한다고 표현하였으며 타인에 대해 신뢰하거나 지지받은 경험이 많이 없어보임.</p> <p>작품: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였으며, 어른이 되어 강할 때의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함.</p>


	<p>M백현주) 행동: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다고 말하자, 치료사는 우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폼클레이 사용법을 알려주고 격려해줌.</p> <p>작품: 선생님을 표현하였으며, 보육 시설에서 자기반 선생님을 만들었다고 말함. 아동은 선생님은 착해서 내가 친구들이랑 싸울 때 도와준다고 함.</p>
	<p>N임솔지) 행동: 아동은 클레이로 살색을 표현하기 위해 치료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작품을 만들면서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며 주도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함.</p> <p>작품: 자신이 아빠가 있으면 든든하고 엄마와 동생을 지켜주는 존재였으면 한다고 말하였으며, 험한말 안 쓰는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마스크를 씌움. 친구들 앞에서는 가족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발표하지 않았음.</p>

C. 종결단계 (11~14회기)

(11) 11회기

구분	내용	
프로그램명	소중한 친구 손	
준비물	지점토, 물감, 붓, 흰접시	
기대효과	긍정적 상호작용, 협동하기, 자존감 향상	
활동	서로 짝과 함께 손을 만들어주고 꾸며주기	
진행과정 및 작품		<p>H(임솔미) 행동: 짝공과 협동심을 많이 보여줌. 짝공인 오빠가 실수로 다쳤는데 미안하고, 실수였다는 오빠의 말에 괜찮다고 말함. 웃으면서 즐거워하였고, 힘조절이 안되는 오빠에게 부드럽게 말투를 씬. 집중도가 많이 발전됨.</p> <p>작품: 짝공인 오빠에게 맞추느라 많이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색을 잘 쓰지 못하여 탁한 색이 나옴. 마지막으로 짝공인 오빠에게 활동 같이해서 고마웠다고 긍정적인 말을 함.</p>
		<p>K(고창빈) 행동: 짝공과의 협동심을 보여주었는데 중간중간 짝은 혼자하고 있고 자신은 다른 팀에 놀러갔다 오는 행동을 함. 집중도가 많이</p>

		<p>발전된 모습과 함께, 짝을 도와주려고 노력함.</p> <p>작품: 자신만의 개성을 보여주기 시작함. 색을 사용하는데 있어 다양한 색을 사용함. 마지막으로 짝궁인 짝에게 대단하다고 긍정적인 말을 해줌.</p>
--	---	--

<p>진행과정 및 작품</p>		<p>(고형빈) 행동: 짝과 초반에 손을 짚으려다가 힘 조절이 잘 안되는 친구에게 성질을 내면서 팀의 분위기가 낮아지고, 서로 사과하지않고 활동을 진행하려 하지 않음. 힘이 없다고 하고, 손이 아프다는 말로 활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상담사의 지지로 다시 짝과 함께 작품을 완성함.</p> <p>작품: 자신이 하려 하지 않은 작품에 상담사의 손이 많이 필요했고, 마지막으로 짝궁에게 긍정적으로 해줄 말이 없다고 하고 속스러워함. 그러면서 짝이 힘내라는 긍정 말을 해주었을 때 속스러워서 웃음.</p>
		<p>(J김민채) 행동: 작품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또래들과 협동심이 많이 향</p>

		<p>상되었으며, 집중도가 많이 발전됨. 자신이 먼저 말을 꺼내고 활동을 이어감. 웃으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임. 짝공인 친구에게 의지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말하면서 활동함. 작품: 자신이 원하는 색을 만들기 어려웠으며, 마지막으로 짝공인 친구에게 같이 활동해서 고맙다고 긍정적인 말을 함.</p>
		<p>(김도현) 행동: 짝공과 서로 협동을 보여주었으며 집중도가 발전된 모습이 보임. 서로 하면서 실수로 다치게 하였는데 바로 미안하다고 실수였다고 사과하였으며, 작품 만들다가 약간 산만해지는 경향이 있었음. 작품: 작품을 만드는 중간중간에 산만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자신이 원하는 색을 잘 찾아서 칠하는 모습을 보여줌. 마지막으로 짝공에게 사랑한다는 말과 웃는 모습이 항상 예쁘다는 말을 해줌.</p>

<p>진행과정 및 작품</p>		<p>(백현주) 행동: 짝공과 서로 협동심을 보여줌. 집중도가 많이 발전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스스로</p>
-------------------------------	--	---

		<p>하려는게 많았지만 동생의 도움에 불만을 갖지 않고 서로 도와주며 활동함.</p> <p>작품: 자신의 개성을 보여주기 시작함. 손가락 하나하나 섬세하게 튀어나오지 않게 칠함. 마지막으로 짝궁인 동생에게 너가 최고라는 긍정 말을 해줌.</p>
		<p>J(임솔지) 행동: 초반에 짝궁인 동생과 다툼이 있었음. 서로 배려하지 않음. 손바닥을 짚을 수 없어 스스로 하려 하지 않고,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에 집중도가 발전됨. 그래도 마무리는 잘 끝냄.</p> <p>작품: 자신의 작품이 손가락 자국이 없어서 속상한 표정을 지었지만 마지막에 짝궁인 동생에게 웃으면서 힘내라는 긍정 말을 해줌.</p>

(12) 12회기

구분	내용
프로그램명	우리들의 희망 나무
준비물	우드락, 클레이, 폼클레이, 엽서

기대효과	자신감 부여, 협동하기, 긍정적 상호작용하기	
활동	내가 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것을 엽서에 적고 희망나무 만들기	
진행과정 및 작품		<p>정사랑) 행동: 선생님과 클레이로 장난을 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집중도가 높아짐.</p> <p>작품: 언니, 오빠들의 방법에 따라오기 힘들어서 울어버림. 언니, 오빠들의 사과에 받아주고 활동을 이어감. 나무이름은 소원나무</p>
		<p>김도현) 행동: 산만하고 소리를 지름.</p> <p>자기주장이 세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줌.</p> <p>작품: 동생이 방법에 따라오기 힘들어서 동생에게 사과하고 쉬운방법으로 활동을 이어감. 다른친구들보다 엽서작업을 빨리 끝냄. 나무이름은 소원나무</p>
		<p>임솔미) 행동: 적극적으로 참여함. 집중도가 많이 높아지고, 합동심을 보여줌.</p> <p>작품: 동생이 방법에 따라오기 힘들어서 동생에게 사과하고 쉬운방법으로 활동을 이어감. 나무이름은 소원나무</p>

		<p>고창빈) 행동: 형에게 달라붙지 말라고 하고 발로 밀침. 말로 먼저 했는데 말을 안들어줘서 계속해서 발로 밀침.</p> <p>작품: 동생이 방법에 따라오기 힘들어서 동생에게 사과하고 쉬운방법으로 활동을 이어감. 다른 친구들보다 엽서작업을 빨리 끝냄. 나무이름은 소원나무</p>
--	--	---

<p>진행과정 및 작품</p>		<p>고형빈) 행동: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줌. 처음에는 안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함. 엽서에 소원을 쓰지 않음. 소원이 없다고 함.</p> <p>작품: 합동심을 보여줌. 서로 배려해가며 나눠쓰고 여러 가지 색을 쓰려고 함. 나무이름은 느티나무</p>
		<p>김민채) 행동: 동생을 괴롭히려고 함. 동생에게 달라붙다가 밀침을 당함. 하지말라는데도 계속하려고 함. 적극적으로 만지고 붙이려고 함. 적당량을 조절을 할 수 있음.</p> <p>작품: 합동심을 보여주고 따로 가려하지않고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고 행</p>

		<p>동하기 시작함. 나무이름은 느티나무</p>
	<p>황준혁) 행동: 친구나 동생에게 장난을 계속 치고 놀림 놀리는 건 안된다는 상담사의 말에 대답은 하지만 행동은 똑같음. 적극적으로 참여함</p> <p>작품: 협동심을 보여줌. 자기주장이 세고 하려고 하는 목적이 확실함.</p> <p>나무이름은 느티나무</p>	<p>황준혁) 행동: 친구나 동생에게 장난을 계속 치고 놀림 놀리는 건 안된다는 상담사의 말에 대답은 하지만 행동은 똑같음. 적극적으로 참여함</p> <p>작품: 협동심을 보여줌. 자기주장이 세고 하려고 하는 목적이 확실함.</p> <p>나무이름은 느티나무</p>
	<p>임솔지) 행동: 적극적으로 참여함. 협동심을 보여줌. 동생들에게 배려를 하기 시작하고 말투를 이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줌.</p> <p>작품: 색을 조합해서 하는 것에 적극적이고 이해가 빨라 동생들을 도와줌 자기의견보다는 동생들의 의견에 따라줌.</p> <p>나무이름은 느티나무</p>	<p>임솔지) 행동: 적극적으로 참여함. 협동심을 보여줌. 동생들에게 배려를 하기 시작하고 말투를 이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줌.</p> <p>작품: 색을 조합해서 하는 것에 적극적이고 이해가 빨라 동생들을 도와줌 자기의견보다는 동생들의 의견에 따라줌.</p> <p>나무이름은 느티나무</p>
		<p>고종빈) 행동: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동심을 보여줌.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하려고 하고 자신이 원하는 부분을 넘어오는 것을 싫어함.</p> <p>작품: 여러 가지 색상을 이해하고 잘 활용함. 형, 누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순간 집중력을 발휘함.</p>

		나무이름은 느티나무
--	--	------------


(13) 13회기, 14회기

구분	내용	
프로그램명	고마운 자신과 타인에게 선물하기	
준비물	아이클레이, 자석, 브로치 핀, 글루건, 선물포장	
기대효과	성취감 형성, 긍정적 상호작용	
활동	아이클레이를 이용하여 만들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만들어서 자석과 브로치 핀을 자신과 고마운 사람에게 선물하기	
진행과정 및 작품		<p>C(임솔미) 행동: 의사소통이 많이 늘었고, 집중도가 많이 높아졌으며, 참여도가 높아짐. 서로 놀리는 이야기보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로 웃음.</p> <p>작품: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모양을 빠르게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김.</p>
		<p>D(고창빈) 행동: 서로의 의사소통과 선생님과 상담사와의 의사소통이 많이 늘어남. 수업에 참여도가 많이 늘어나고, 집중도가 많이 형성됨. 서로 놀리는 이야기보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로 웃음.</p> <p>작품: 자신이 만들려고 하는 모양</p>

		<p>을 미리 생각해두고 바로 실행함. 자신의 작품에 만족감을 느끼고 뿌듯해 함.</p>
--	--	---

<p>진행과정 및 작품</p>		<p>E고형빈) 행동: 의사소통이 많이 좋아졌고, 집중도가 많이 높아졌으 며, 참여를 적극적으로 함. 서로 놀리는 이야기보다 오늘 하루 있었 던 이야기로 웃음. 작품: 자신의 작품을 마음에 들어 함.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하려고 하 고 완성시킴. 처음에는 못한다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자신의 작품을 완성함.</p>
		<p>F김민채) 행동: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차분해졌지만 말이 많아 짐. 상담사와 선생님과 의사소통 이 많아졌고, 적당량을 생각하고 조절할 수 있음. 아빠한테 고마워 야 한다고 말함. 집중도가 많이 좋 아졌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며, 자신의 주장을 선을 지키며 행동 함. 집단원이 서로 놀리는 이야기 보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로 웃음.</p>

		<p>작품: 자신의 작품을 잘 만들었으며, 치료사 및 보조치료사에게 작품을 감사선물로 줌. 선물하기 전 자신의 작품이 망가질까 봐 불안함이 높았음.</p>
		<p>H김도현) 행동: 누나에게 줄 선물을 들고옴 다른 누나가 달라고 했지만 주지 않음. 의사소통이 많이 좋아짐. 집중도가 많이 좋아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함. 집단원이 서로 놀리는 이야기보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로 웃음.</p> <p>작품: 다른 친구들보다 빨리 끝남. 자신이 빨리 끝나자 잠시 생각을 하더니 좀 더 해보겠다고 하면서 작업을 이어서 함.</p>
<p>진행과정 및 작품</p>		<p>I백현주) 행동: 친구에게 간식을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는 모습이 보였으며 자기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집중도가 많이 높아짐. 집단원이 서로 놀리는 이야기보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로 웃음.</p> <p>작품: 자신의 작품에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주었고 작품 완성도가 많</p>

		<p>이 높아짐.</p> <p>자신이 만드려하는 모양과 만드는 목적이 확실함.</p>
		<p>J임솔지) 행동: 의사소통이 많이 좋아졌고, 집중도가 많이 높아졌으며, 참여를 적극적으로 함. 집단원이 서로 놀리는 이야기보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로 웃음.</p> <p>친구들이나 동생들에게 말을 이쁘게 쓰려는 노력을 보여줌. 선생님과 상담사에게 선물을 줌.</p> <p>작품: 간단하게 완성하려는게 보이지만 사랑이라는 의미를 자세하고 신중하게 표현함. 자신의 마음을 또래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음.</p>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점토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보육시설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래관계와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선행연구의 프로그램을 토대로 보육시설 아동에게 점토를 활용하여 자기감정과 서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도록 하였다. 또한 협동작업을 통해 상호작용을 맺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정서발달과 긍정적인 관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점토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또래관계 척도에서 사전에 비해 사후에 전체점수와 하위영역별 점수가 향상되었다. 따라서 점토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또래관계 향상에 영향을 주었다.

둘째, 점토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사회성 척도에서 사전에 비해 사후에 전체점수와 하위영역별 점수가 향상되었다. 따라서 점토를 활용한 집단 미술치료가 사회성 향상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또래관계 척도가 높게 나타난 아동이 사회성 능력도 함께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술치료를 통해 또래들과 함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여 사회성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함께하는 것이 가치 있으며, 타인의 존재를 소중하게 인식하게 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성에서도 미술치료 수업 중 규칙 지키기, 집단 원들 간의 협동하기, 시간 내 만들기를 통한 성취감 경험하기, 서로의 말 잘 들어주기, 상호관계의 이해 및 지지해주기 등은 규칙준수와 신뢰적인 경험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회성 향상에 기여했다.

평가도구에 의한 분석과 회기별 내용분석, 행동관찰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점토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보육시설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또래관계 척도에서 우의,대립,사회적지지,친밀,차별주도권 모

두 사전에 비해 사후에 전체점수와 하위영역별 점수가 향상되었으므로 또래관계 향상에 영향을 주었다.

둘째, 집단미술치료가 보육시설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회성 척도에서 준법성,협동성,사고성,자주성 모두 사전에 비해 사후에 전체 점수와 하위영역별 점수가 향상되었으므로 사회성 향상에 영향을 주었다. 이어서 첫 번째 연구문제인 점토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보육시설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하는 문제에서는 집단원들의 행동관찰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고 사전·사후에 동적 학교생활화(KSD)그림검사를 한 결과 집단원들의 또래관계가 향상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점토 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주희연(2012)과 집단미술치료가 정서적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박세라(2020), 또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생의 사회성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김도희(2014)와, 점토를 이용한 집단 미술치료가 다문화 가정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김하늘(2014)과 집단미술치료가 고립아동의 우울성향, 또래관계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박인숙(2009)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셋째, 행동관찰에 의한 또래관계 및 사회성 변화를 살펴본 결과 초기에는 자신의 의견을 잘 말하지 못하고 위축이 되어 있고, 부정적 언어 사용으로 공격적이며 다른 집단원과의 상호작용이 없는 아동들이 후기에는 발표하는데 자신감이 보이고 한층 더 안정된 모습이 보였다. 또한 자기표현에 대한 거부감이 줄고 미술활동에 집중하는 등의 스스로 만족감을 느꼈으며, 다른 아동들을 놀리거나 비난하는 부정적인 태도가 줄었다. 또한 집단원들끼리 작업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친밀감이 높아졌으며 함께 협동하며 어울리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이를 통해 또래관계 및 사회성 향상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동적 학교생활화(KSD) 그림검사에 의한 또래관계 및 사회성 변화 결과를

살펴본바 사전에는 불안한 친구관계, 또 함께 어울리는 것에 위축된 모습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사후검사에는 전반적으로 인물의 표정이 밝아지고 자기상의 크기가 커졌으며 활동적인 그림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은 김효은(2008)의 연구 결과에서 그림표현이 사전 그림에 비해 사후 그림의 표현이 안정적임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연구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점토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고, 아동의 원만하지 않은 사회적 기술 및 사회성 향상에 매우 유용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이렇게 본 연구는 교육현장에서 치료 및 상담에 기여할 수 있으며, 또래 관계가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신안군 0읍에 위치한 S보육시설에 거주하는 보육시설 아동으로 한정하였다.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폭넓은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교사나 담당자에게도 자료를 수집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양지(2017). 격려집단미술치료가 보육시설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도희(2014).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생의 사회성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0.4:213-239.
- 김소영, 이근매(2010).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위한 사회성 향상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美術治療研究 17.6 : 1333-1355.
- 김수연(2019). 점토 활용 집단미술치료가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현(2016). 또래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또래 애착과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순희(2015).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성격특성의 매개효과. Diss.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김아름(2014). 시설보호아동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이해(2015). 점토중심의 집단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윤경(2019). 정서적 방임아동의 점토중심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차의과학대학교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하늘(2014). 점토를 이용한 집단 미술치료가 다문화 가정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화정(2002).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아주대학교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현수(2013).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력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

- 과.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현정(2011). 집단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박경화(2010). 인지행동적 집단미술치료가 학교생활 부적응 아동의 사회성 및 주의집중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경기대학교 미술·디자인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박범진(2016). 집단미술치료가 시설보호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국내석사학위 논문.
- 박인숙(2009). 집단미술치료가 고립아동의 우울성향, 또래관계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국내박사학위논문.
- 박지효(2015). 점성매체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정응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국내석사학위논문.
- 이배근(2000). 해체가정과 요보호아동들을 위한 Group Home 모형 개발. 한국아동복지학, (9), 289-312.
- 이성미(2017).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시설보호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평택대학교 상담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이재희(2017). 해결중심 집단미술치료가 시설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임정하, 정옥분(1997).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사회적 능력의 관계. 아동학회지, 18.1:163-175.
- 허숙자(2008). 집단미술치료가 시설아동의 사회성향상에 미치는 효과.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서영미 (2004). 아동이 지각한 가족기능성, 또래관계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남숙(2004). 집단미술치료가 보육시설아동의 우울성향 감소에 미치는 영향. 중

양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민섭 (2005). 그림을 통한 아동의 진단과 이해. 학지사.

정현희(2008). 초등학생의 사회적 기술향상과 또래관계 개선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사례. 미술치료연구, 15(3), 445-467.

조운서(2018).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아동의 자기표현력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국내석사학위논문

주희연(2012). 점토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양대학교 이노베이션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최명옥 and 구자경. (2013). 시설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신체상중심 집단 미술치료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20(3), 497-522.

점토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보육시설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정 하 연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술치료학과

지도교수 김 승 환

본 연구는 점토매체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보육시설 아동의 또래관계와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실험대상은 전남 압해도에 소재한 ○○보육시설에서 복지사 선생님께 추천을 받은 5,6학년 아동들과 전남 목포시에 소재한 ○○보육시설에서 복지사 선생님께 추천을 받은 4,5,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군은 전체 14명이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각각 7명씩 배정하였다. 본 연구 집단 프로그램은 총 14회기로 초기단계 3회기(1회기~3회기), 중기 1단계 7회기(4회기~7회기), 중기2단계 10회기(8회기~10회기), 종결단계 4회기(11회기~14회기)로 구성되어 있다. 장소는 보육시설 내에 있는 집단상담실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통제집단은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험집단과 마찬가지로 각각 한 달 차이를 두고 진행하였으며 장소는 보육시설 내에 있는 집단상담실에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보육시설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면담을 실

시하였고,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25.0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또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게 사전·사후검사 동일하게 또래관계 및 사회성척도검사와 KSD(학교생활화)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림검사에 대한 질적분석은 본 연구자와 1인의 미술치료사가 각각 그림에 대한 구조적 분석과 형태적 분석을 한 후 신뢰도 충족을 위하여 전문가의 감수를 받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보육시설 아동의 또래관계에 있어 실험집단이(3.538), 통제집단(1.842)보다 높았으며, 사전(2.342)보다 평균점수가 높아져 점토매체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가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보육시설아동의 사회성발달에 있어 실험 전 평균 1.497였으며, 실험 후 사회성 평균은 2.402로 실시 후 실험 전에 비해 높게 나타나 점토매체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점토매체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 회기별 프로그램은 부드러운 촉감의 점성매체의 사용으로 감성을 자극하여 공격성이나 거친 언어의 사용이 감소하였다. 또한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보육시설 아동의 집단생활의 규칙과 상대방의 배려 그리고 자기 표현 등을 인지하고 조절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처럼, 점토매체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는 보육시설에서 부적응행동의 예방적 차원과 함께 보육시설 아동들의 또래관계 향상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주요어: 점토매체, 보육시설아동, 또래관계, 사회성, 집단미술치료

<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주제 :

연 구 자 :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점토 미술치료 활동을 통한 체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점토 미술치료 활동은 1주일에 1번, 총 14회기로 이루어지며 약 40분에서 45분 정도의 점토 미술치료 활동과 면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면접 내용은 녹음될 것이고, 녹음된 테이프와 작품은 본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점토 미술치료 활동이 소근육의 발달과 그들의 정서적인 안정감과 창의적인 감각을 유발시키기에 좋은 경험이 될 것이며 또래관계 및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자료는 앞으로 자연적인 매체인 점토를 활용한 점토 미술치료의 연구 및 실제에 기초적인 자료로서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본인은 본 연구의 내용 및 면접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점토 미술치료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본인의 이름이 익명으로 기재될 것을 약속받았고 면접 내용에 대해 비밀을 지킬 것을 보장받았으며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받았습니다.

본인은 연구자와의 면접 내용을 테이프로 녹음하는 것과 작품이 연구에 사용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또한 연구가 끝난 뒤, 작품과 녹음된 테이프는 지워질 것임을 설명받았습니다.

참여자 : (인)

참여자 보호자 : (인)

연구자 : (인)

날 짜 : 년 월 일

또래관계 검사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 표를 해주세요.

번호	질문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친구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다	5	4	3	2	1
2	나와 친구들이 의견이 달라 맞설 때가 많다	5	4	3	2	1
3	친구들은 내가 모르는 것을 잘 가르쳐 준다	5	4	3	2	1
4	나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만족한다.	5	4	3	2	1
5	나는 친구들과 나의 일을 말하기를 좋아한다.	5	4	3	2	1
6	나는 친구들이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을 경우 잘 도와준다	5	4	3	2	1
7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5	4	3	2	1
8	친구들은 나를 괴롭힌다.	5	4	3	2	1
9	친구들은 나를 존중한다.	5	4	3	2	1

10	친구들은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잘해준다.	5	4	3	2	1
11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 친구들과의 관계는 계속될 것이다.	5	4	3	2	1
12	나는 친구들과 같이 놀 때 즐겁다.	5	4	3	2	1
13	나와 친구들은 생각이나 의견이 다르다.	5	4	3	2	1
14	친구들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잘도와준다.	5	4	3	2	1
15	나와 친구들 사이의 일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5	4	3	2	1
16	나는 친구들과 비밀 이야기를 잘 한다.	5	4	3	2	1
17	나는 친구들을 보호하고 지킨다.	5	4	3	2	1
18	친구들은 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다.	5	4	3	2	1
19	내가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친구들은 나를 비난한다.	5	4	3	2	1
20	친구들은 내가 여러 가지 일을 잘한다고 인정해준다.	5	4	3	2	1
21	친구들은 나보다 지배적이다.	5	4	3	2	1
22	내가 친구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5	4	3	2	1

	친구 관계는 지속될 것이다					
23	나는 친구들과 즐거운 일이 많다.	5	4	3	2	1
24	나는 친구들과 논쟁을 자주한다.	5	4	3	2	1
25	친구들은 나를 많이 도와준다.	5	4	3	2	1
26	나와 친구들은 관계가 좋다	5	4	3	2	1
27	나는 알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친구에게 이야기를 잘한다.	5	4	3	2	1
28	나는 친구들을 잘 돌보아준다.	5	4	3	2	1
29	친구들은 나에게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	5	4	3	2	1
30	내가 해선 안 되는 일을 했을 때 많이 꾸짖는다	5	4	3	2	1
31	친구들은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며 찬성한다.	5	4	3	2	1
32	나와 친구들 사이의 일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친구들이 결정하는 편이다.	5	4	3	2	1
33	앞으로 나와 친구들과의 관계가 계속 좋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5	4	3	2	1

<부록 3> 사회성 질문지

사회성 검사

학년	성별	이름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이 검사는 어린이 여러분의 생각,태도,습관,행동 등을 알아보고 즐거운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이 설문지는 맞고 틀린 답이 없으며, 좋고 나쁜 답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한 문장도 빠짐없이 정확하고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 설문지의 결과는 학교 성적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각 질문을 차례로 읽어 가면서 나의 행동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칸에○ 표를 하면 됩니다.

번호	질문	예	보통	아니오	유형
1	나는 학급 어린이회의 규칙을 잘 지킨다.				준 법 성
2	한번 시작한 일은 어렵더라도 끝까지 해낸다.				
3	복도에서 뛰고 싶지만 규칙을 지킨다.				
4	선생님의 말씀이 좀 지루할 때도 끝까지 잘 듣는 편이다.				
5	찾길을 건너갈 때 반드시 육교나 횡단보도를 이용한다.				
6	빌린 물건은 제때에 돌려준다.				
7	분단학습을 할 때에 함께 의논하는 것이 좋다.				사

8	친구들과 놀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어도 참고 논다.				교 성
9	남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 기쁘다.				
10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물었을 때 귀찮아 그냥 지나간다.				
11	숙제를 할 때 친구들과 같이 할 때가 많다.				
12	집단 미술활동을 할 때 협조적이다.				
13	사람들이 나를 짝짝한 아이라고 한다.				
14	무엇이든 새롭고 의심나는 것을 잘 물어본다.				
15	친구를 잘 사귀고 오랫동안 함께 잘 논다.				
16	이웃에 사는 친구를 보면 내가 먼저 아는 체 한다.				
17	새 친구가 반에 들어오면 다른 아이들보다 친절하게 대해준다.				
18	아는 사람을 보면 먼저 인사한다.				협 동 심
19	친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준다.				
20	아이들이 많이 노는 곳에 가서 즐겨 논다.				
21	내 잘못을 친구가 지적해 주면 고맙게 듣는다.				
22	아는 집에 심부름 갈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잘 간다.				
23	친구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기분을 전환 시켜준다.				
24	친구가 잘못된 행동을 했어도 잘 참고 용서해준다.				
25	혼자서 정리 정돈을 잘한다.				자

26	하루 생활계획표를 짜서 생활한다.				주 성
27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될 때 주장할 줄 안다.				
28	친구가 청소 당번이면 기다려서 같이 간다.				
29	어떤 일을 할 때 남들이 늘 하는 방법을 쓰지 않는다.				
30	내 문제는 나 혼자 해결하려고 애쓴다.				